

국제교육서비스 산업으로서
유학생 유치 연구

2015. 3. 31



국제교육서비스 산업으로서 유학생 유치 연구

연구책임자 : 이주현 (서울시립대)

공동연구원 : 하연섭 (연세대)

연구보조원 : 신가희 (연세대)

2015. 3. 31

교 육 부

제 출 문

교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교육서비스 산업으로서 유학생 유치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3. 31

- 주관연구기관명 : 서울시립대학교
- 연 구 기 간 : 2014. 11. 3 - 2015. 3. 31
- 주관연구책임자 : 이 주 헌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3. 연구 방법	3

II. 고등교육 국제화의 현황

1. 세계적 수준에서의 대학국제화의 현황	5
가. 학생 이동성의 현황	5
나. 국제 고등교육 시장 점유율 현황	7
2. 유학 대상국 및 유학생 출신국의 현황	9
가. 유학 대상국 현황	9
나. 유학 대상국의 변화	10
다. 유학 출신국의 현황	11
3. 유학생 시장 예측	12
가. 세계적 차원의 고등교육 팽창과 유학생 증가	12
4. 유학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
가. 강의 언어	14
나. 프로그램의 질	15
다. 등록금과 생활비의 수준	16
라. 이민 정책	17
마. 기타 요인	17

III.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및 특징 분석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18
2. 과정별 유학 신입생 추세	24
3. 외국인 유학생의 과정별 · 대학별 분포	26
가. 4년제 대학 전체	26
4.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33
가. 설문조사 개요	33
나. 한국으로 유학 온 계기	34
다. 한국으로 유학 온 목적	36
라. 유학생 활의 어려움	41
마. 취업 비자의 유용성	42

IV. 2015~2023년 유학생 수 추정

1. 과정별 신입생 수 동향	43
2. 유학생 수 추정	45

V.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1. 주요국의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49
가. 미국	49
나. 영국	50
다. 호주	52
라. 캐나다	54

마. 뉴질랜드	54
바. 유럽 국가	55
2.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추정	56
가. 대학원 등록금 수입	56
나. 4년제 대학 학부생 등록금 수입	57
다. 전문대 등록금 수입	59
라. 어학연수생 등록금 수입	60
바. 기숙사비	61
사. 생활비	65
아. 유학생 유치시의 경제적 효과 (총수입)	67
자. 유학생 1명 유치 시의 경제적 기대 효과 (1년 단위)	68

VI.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방안 : 비자정책

1. 고등교육 국제화와 한국의 국제화 정책	70
가.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과 필요성	70
나.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의 문제점	71
2. 해외 주요국들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관련 정책	73
가. 해외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 비교	73
나.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관련 정책변화	86
다.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의 산업정책적 중요성	87
3.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 관련 주요 이슈	88
가. 유학생 정책과 산업 및 노동 부문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탐색	88
나. 유학생의 정주와 안정적 커리어 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	90
다. 유학생 가족비자 제도 개선	92
4.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비자제도 개편 중심)	99

가. 한국 유학시장의 현황	99
나.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	106
VII. 정책 제언	
1.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114
가. 외국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및 유학 정보 센터 강화	114
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요 흡수	115
다. 첨단산업, 한국발전경험, 전문기술 등 유학생 맞춤형 특화교육과정 개편·개설	116
라. 유학생 취업 및 동문회 운영 지원	117
2.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118
가.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118
나. 정부초청장학생(GKS) 지방대학 트랙 운영	119
3.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구축	120
가.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 센터 및 통합 기숙사 건립	120
나. 유학생 취업 및 가족동반 지원	121
다. 재외 한국학교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122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개선	123
마. 해외 유학홍보 강화	124
참고문헌	125
<부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조사를 위한 설문지	127

표 차 례

<표 II-1> 국제학생,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정의	6
<표 II-2> 주요국의 유학생 점유율	11
<표 II-3>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국가	14
<표 II-4> 등록금의 수준	16
<표 III-1> 연도별 유학생 수	18
<표 III-2> 출신 지역별 현황	19
<표 III-3> 국가별 현황	19
<표 III-4> 과정별 현황	19
<표 III-5> 유학형태별 현황	20
<표 III-6> 계열별 유학생 현황 (어학연수 · 기타연수 종합)	20
<표 III-7> 각 연도의 수도권 과정별 유학생 비율	22
<표 III-8> 졸업생 국내취업 현황	23
<표 III-9> 과정별 신입생 비중: 2008 ~ 2015년	25
<표 III-10> 4년제 대학 유학생의 분포	27
<표 III-11> 4년제 대학 학부과정 유학생의 대학별 분포	28
<표 III-12> 대학원생의 대학별 분포	29
<표 III-13> 어학연수생의 대학별 분포	30
<표 III-14> 기타 학생의 대학별 분포	31
<표 III-15> 전문대 유학생의 대학별 분포	31
<표 III-16> 대학원대학 유학생의 대학별 분포	32
<표 III-17> 과정별 · 대학 소재지별 응답 학생의 분포	34
<표 III-18> 출신국별 · 과정별 응답 학생 분포	34
<표 IV-1> 과정별 신입생 수 : 2008-2015년	43
<표 IV-2> 과정별 신입생 수 (추정) : 2015-2023년	46

<표 IV-3> 연도별·과정별 유학생 추정치 : 2015-2023년	48
<표 V-1> 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49
<표 V-2> 영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50
<표 V-3> 호주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52
<표 V-4> 캐나다 유학생 수 및 수입(2010년)	54
<표 V-5> 뉴질랜드 유학생 수 및 수입(2010년)	54
<표 V-6> 유학생 경제적 효과 (1인 당, 연간)	55
<표 V-7> 대학 유형별 등록금 수입	59
<표 V-8> 장학금 지급률의 비교	61
<표 V-9> 유학생(응답자)들의 주거 형태	62
<표 V-10> 전체 유학생들의 주거 형태 (추정)	65
<표 V-10> 유학생(응답자)들의 식비	66
<표 V-11> 유학생(응답자)들의 교통비	66
<표 V-12> 유학생(응답자)들의 기타 잡비	66
<표 V-13> 유학생 유치시의 경제적 효과	67
<표 V-14> 유학생 1명 유치 시의 경제적 기대 효과	68
<표 VI-1> 고등교육 국제화의 근거와 근거별 유형	72
<표 VI-2> 해외 각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의 목적 및 내용	74
<표 VI-3> 핀란드 교육 수출 전략	84
<표 VI-4> 외국 인력 비중의 국제비교	87
<표 VI-5> 일반대학과정 유학을 위하 비자 제도 비교	93
<표 VI-6> 2014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고등교육기관 전체)	100
<표 VI-7> 2014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4년제 대학)	102
<표 VI-8> 특정 활동 체류자격 변경허가관련 심사기준	108
<표 VI-9> 유학생 가족의 정의	110
<표 VII-1> 과정별 신입생 수	115

<표 VII-2> 정부초청장학생 (GKS) 동문회	117
<표 VII-3>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안)	118
<표 VII-4> 정부초청 장학생의 수도권·지방대학 수학 규모 (비율)	119
<표 VII-5> 글로벌 교류센터 지원 프로그램	120
<표 VII-6> 취업·구직 비자 체류 요건	121
<표 VII-7>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11 - '14년)	123

그 림 차 례

[그림 II-1]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 수 추이	6
[그림 II-2] 국제 고등교육 시장 국가별 점유율 비중 (2000, 2012년)	8
[그림 II-3] 유학 국가별 고등교육 외국인학생 분포 (2012)	10
[그림 II-4] 고등교육 외국인학생 출신지역 분포 (2012)	12
[그림 III-1] 외국인 유학생 분포 (2014)	21
[그림 III-2] 한국으로 유학 온 계기	35
[그림 III-3] 전체 설문 응답 학생의 한국으로 유학 온 목적	36
[그림 III-4] 중국 학생의 유학 온 목적	37
[그림 III-5]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37
[그림 III-6] 아메리카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37
[그림 III-7] 유럽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38
[그림 III-8] 러시아 및 CIS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38
[그림 III-9] 아프리카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38
[그림 III-10] 중동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39
[그림 III-11] 대학원 학생의 유학 온 목적	40
[그림 III-12] 4년제 대학 학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40
[그림 III-13] 전문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40
[그림 III-14] 어학연수 학생의 유학 온 목적	41
[그림 III-15] 기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41
[그림 III-16] 전체 학생의 유학생활의 어려운 점	42
[그림 III-17] 취업비자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	42

I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각 국은 국경을 넘어 우수인재 유치 위한 경쟁에 돌입
 - 우리의 경우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대학 입학자원 급감으로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타격이 매우 크며, 이는 지역사회 경제 어려움 등 지역의 위기로 직결
- 유학생 유치는 대학·지역사회·정부의 수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유학생 유치를 인재 육성·활용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및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의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 부재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 설계
 - 국제적 수준의 학생 이동성 현황 분석
 - 주요 유학생 유치국의 교육시장 환경 분석
 -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대상국 선정 시 주요 고려 사항 분석
 - 유학 산업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와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유학생 유치 방안 설계
 - 유학 대상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 설계
 - 신규 사업 예정인 (가칭)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도대학 사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방대학 특성화, 수도권대학 특성화, BK21-Plus,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유학생 유치 우수대학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유학생 증가 추세 분석

- 2012년 ‘Study Korea 2020 Project’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주요 유학생 유치국의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의 유학생 증가 추계
- 한국어 능력 기준 완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주요 유학생 유치국의 전략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학생 증가 추세 분석

○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편익 분석

-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생활비, 기타 과급효과를 통한 경제적 편익 창출 규모 추계
- 학부생, 대학원생, 어학연수생 및 기타 연수생 등 유학생 유형에 따른 유치 효과 분석

○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치 연계 방안 연구

-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유학생 가족에게 국내 취업비자 발급의 타당성 검토
- 고용허가제 등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 방안 검토
- 외국의 유학생과 가족 취업의 연계 사례 분석

○ 유학생 취업비자제도 개선 및 민원해소 방안 연구

- 유학생 취업의 행정적 문제점 파악
- 민원 다수 발생 내용 파악 : 유학생 전공과 취업 연계 문제, 졸업 후 구

직기간 설정 등

- 비자제도(규정) 분석 및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균형 있는 유학생 취업원칙 제안
- 유학생 취업의 순기능·역기능 및 이에 대한 과제 분석
- 제도개선의 효과 예측

3. 연구 방법

○ 외국 사례 분석

- 호주,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유학 산업을 통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의 사례와 근로자와 유학생 유치 연계 사례 등 자료 조사
-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요국의 유학생 유치 전략 분석
- 해외 유학전담기구(예: 독일 DAAD 등)의 우수 사례 및 벤치마킹 가능성 탐색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통해 수집한 유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등에 관한 자료 분석
- 주요국의 유학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

○ 설문조사를 통한 유학생 유치 편의 추정 및 유학생 현황 파악

- 국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편의 추정
- 국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학동기, 한국 유학을 선택한 계기 등을 조사

○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의견

- 주요 대학의 국제처장, 국제처 직원, 대학 국제화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및 자문회의 개최
- 고용전문가, 정부 부처 관계자(고용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 포함) 등과의 인터뷰 및 자문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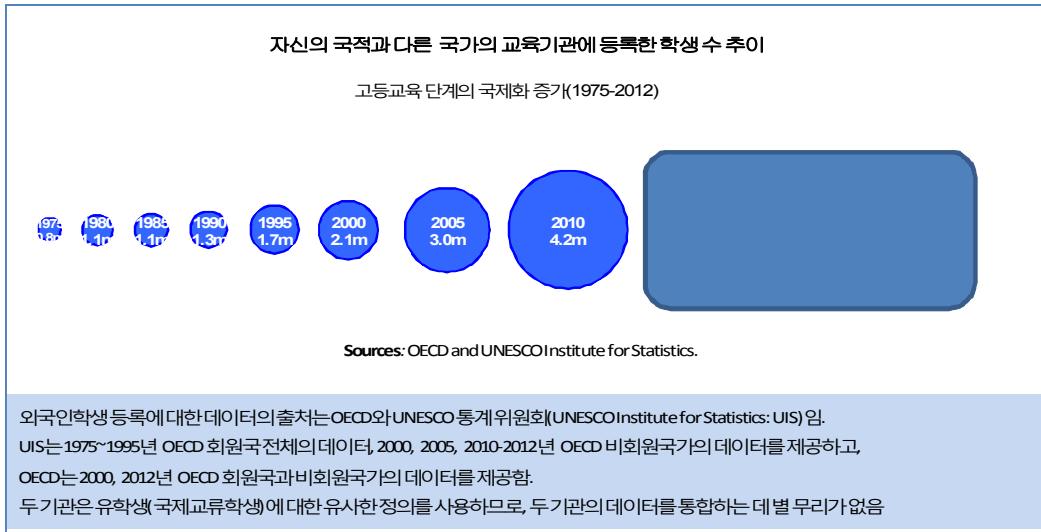
II. 고등교육 국제화의 현황

1. 세계적 수준에서의 대학국제화의 현황

가. 학생 이동성의 현황

-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등교육단계에서도 학생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학생 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일방향성이 특징임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및 호주가 전 세계 유학생의 50% 이상을 유치
 - 호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에서는 국제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10% 이상을 차지
 - ※ 2012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국제학생의 비율 : 호주 18%, 오스트리아 15%, 룩셈부르크 41%, 뉴질랜드 16%, 영국 17%, 스위스 16%, 미국 4%
 - ※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유학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가장 높으나 국내 학생의 절대수가 크기 때문에 국제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
- 201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450만 명이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 이 중 75%가 OECD 국가에서 유학
 - ※ 외국인 유학생 수 : 80만 명('75) → 130만 명('95) → 280만 명 ('05) → 370만 명('09) → 450만 명 ('12)
- 2000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의 수는 두 배 이상 증가
 - 연평균 약 7% 증가

[그림 II-1] 자신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 수 추이



- 전 세계 외국 유학생의 53%는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
 - 중국, 인도, 한국이 대표적인 학생 과연국가임

<표 II-1> 국제학생,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정의

- 국제학생(international students) : 자신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의미
 - 외국학생 (foreign students) : 영주권자 및 당해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까지 포함
- * 외국학생은 국제학생을 포함하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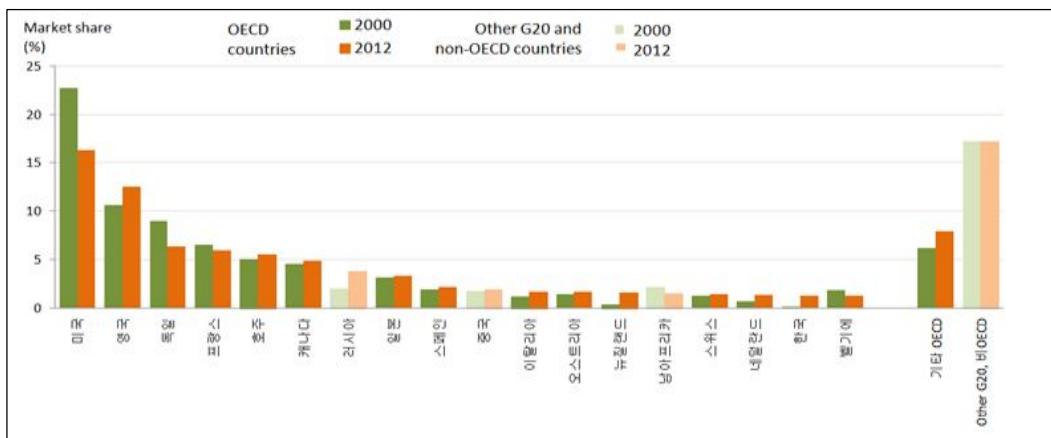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나. 국제 고등교육 시장 점유율 현황

- [그림 II-2]는 2000년과 2012년 사이 국제교육 및 유학생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점유율의 하락과 영국, 호주 등 기타 영어권 국가들의 점유율 확보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 비 G20국가의 비중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세계 국제고등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3%에서 2012년 16%로 줄었으며, 독일 역시 동기간 3%의 점유율 감소를 보임. 반면, 영국과 러시아는 2%, 뉴질랜드와 한국의 경우 적어도 1% 이상의 점유율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학생의 비중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수준을 평가할 때 역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들이 타 국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미국은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들 평균에 미치지 못함

[그림 II-2] 국제 고등교육 시장 국가별 점유율 비중 (2000, 2012년)

- 유학(체류) 국가별 고등교육단계 전체 외국인학생 재학 비율 -



자료 : 1. 국제교류학생은 거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준으로 정의함. 영국은 2011년 시민권을 기준으로 한 자료임
 2. 2012년도 대신 2011년도 자료임. 국가는 2012년 국제 교육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3. 출처 : OECD 표 C4.7. 부록 3 참조. (www.oecd.org/edu/eag.htm).

- 한국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04년 이후 11,121명에서 2014년 현재 53,636명으로 4.8배 증가하였음. 이 중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은 각각 30,525명과 1,576명이며, 대학원생의 수는 21,535명임
- 2000년대 이후 한국 고등교육기관 내 유학생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학생 대비 2%(2012년) 정도로, OECD 평균 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같은 해 호주 18%, 영국 17%, 뉴질랜드 16% 등과 비교했을 경우에 한국의 유학생 유치실적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OECD 2014)

2. 유학 대상국 및 유학생 출신국의 현황

가. 유학 대상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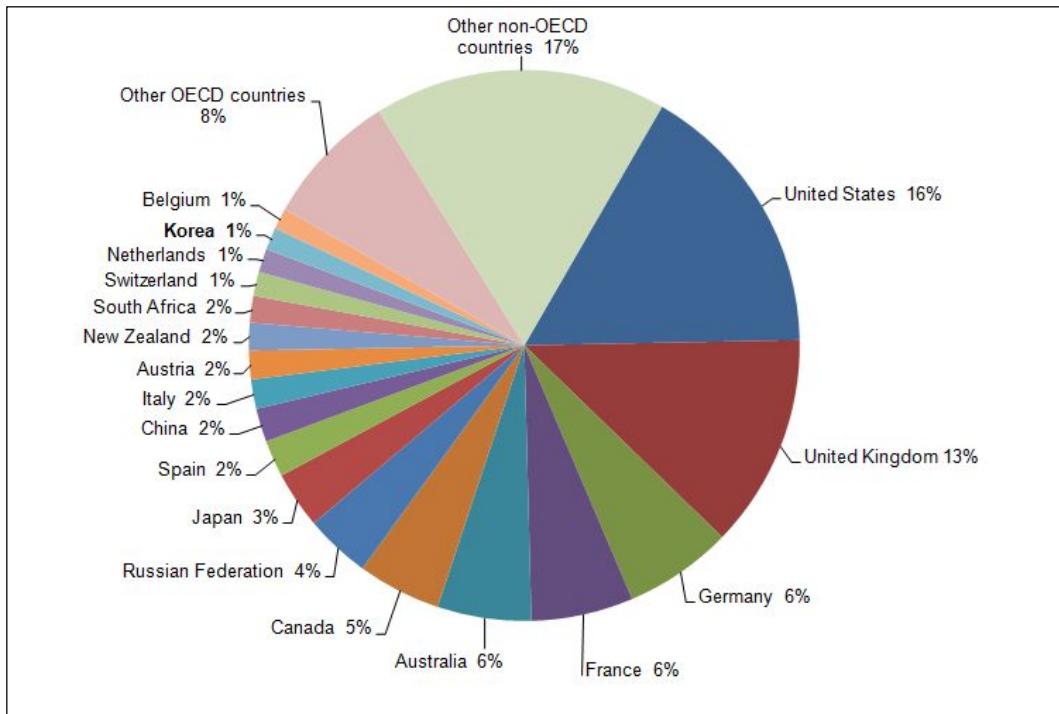
○ 유학생의 지역별 분포

- 2012년 현재 유럽은 고등교육 유학생의 최대 목적지로서 48%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가 21%, 아시아가 18%를 유치
- 오세아니아는 비록 10% 이하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나, 유학생의 수는 2000년 이후 거의 세배로 증가
-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카라비안 지역도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 국가에서 대학의 국제화가 진전됨을 반영

○ 유학생의 국가별 분포

- 2012년 현재, 고등교육 외국인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6개국에서 재학 중
 - 미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학생이 전체의 16%로 가장 많고, 영국(13%), 독일(6%), 프랑스(6%), 호주(6%), 캐나다(5%) 순
 - G20 국가가 전 세계 82%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75%의 외국인 학생은 OECD 회원국에서 재학 중
- ※ 이 비율은 지난 10년 간 유지되고 있음

[그림 II-3] 유학 국가별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분포 (2012)



자료 : 1. "international students(국제교류학생)"은 거주권을 가진 국가를 기준으로 정의
2. 2011년 자료

3. 출처 : OECD 표 C4.4, C4.7 (on-line 자료). 부록 3 참조.

(www.oecd.org/edu/eag.htm).

나. 유학 대상국의 변화

- 전통적 유학생 유치 강국이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의 2007년 이후의 유학생 점유율을 비교하면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경우에는 2007년 12%에서 2009년 10%로 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13%로 상승하였음

<표 II-2> 주요국의 유학생 점유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2007년	20%	12%	9%	8%	7%
2009년	18%	10%	7%	7%	7%
2012년	16%	13%	6%	6%	6%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various years.

- 이외에 러시아 (4%), 일본(3%), 오스트리아(2%), 이탈리아(2%), 뉴질랜드(2%), 스페인(2%)이 주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에 기인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대학주도의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다. 유학생 출신국의 현황

○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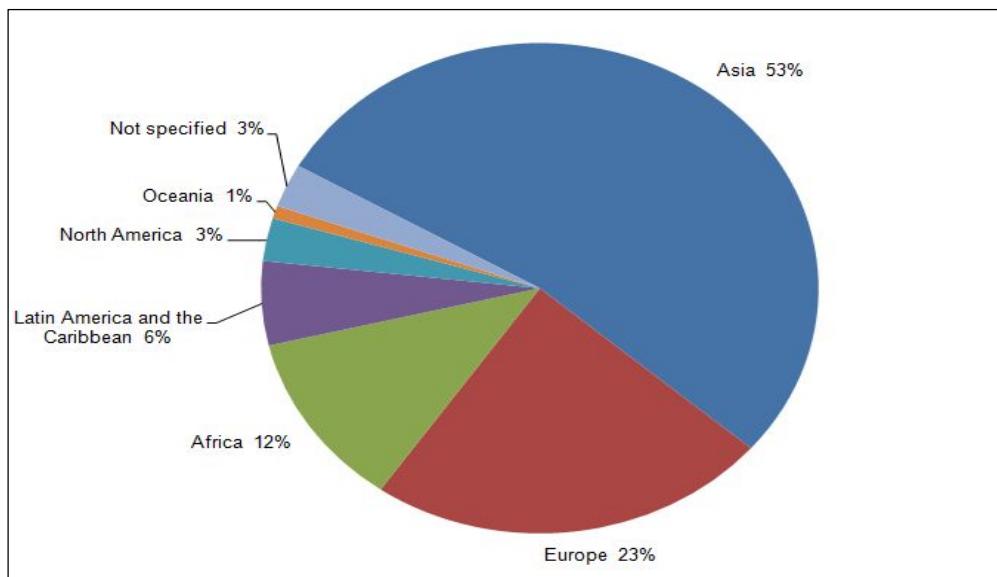
-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일본(94%), 한국(93%), 호주(82%), 미국(73%), 뉴질랜드(70%)에서 아시아 출신 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

○ 국가별 현황

- 2012년에 중국학생들은 OECD 지역 전체 유학생의 2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중국인 유학생 중 28%는 미국, 13%는 일본, 11%는 호주, 11%는 영국, 6%는 한국에서 수학 중
-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인도(5.8%)로서, 이들의 45%는 미국, 17%는 영국, 6%는 캐나다, 5%는 호주에서 수학 중

[그림 II-4] 고등교육 외국인학생 출신지역 분포 (2012)

- 세계 각국 고등교육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



출처 : OECD. 표 C4.3. 부록 3 참조. (www.oecd.org/edu/eag.htm).

3. 유학생 시장 예측

가. 세계적 차원의 고등교육 팽창과 유학생 증가

○ 유학생 수

- 2000년 2백만 명 → 2012년 450만 명 (연간 7% 성장)
- UNESCO 예측 : 2009년 340만 명 → 2020년 700만 명
- 이 중 50%인 약 350만 명은 영어권으로 유학을 갈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초 이후 유학생의 비율은 전 세계 대학생의 2% 수준으로 고정

- 전 세계 대학생 인구는 2011~20년 사이 21백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 평균 1.4% 증가
 - 지난 20년 간 연 평균 5% 증가와 대비됨
- 2020년 경에는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네 국가의 18~22세 인구가 전 세계 18~22세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
 -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필리핀, 멕시코, 이집트, 베트남이 나머지 25%를 차지
- 2020년에 중국의 18~22세 인구는 9천만 명으로 예상되나, 이는 현재보다 2천만 명 감소하는 수준임
 - 반면 나이지리아 3.9백만 명, 인도 2.9백만 명, 에티오피아 1.9백만 명, 필리핀 1.2백만 명, 파키스탄 0.9백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02년에서 2009년 사이 전 세계 유학생 증가의 1/3을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뚜렷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신, 유학생 증가를 인도가 주도할 것으로 보임
 -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도 유학생 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4. 유학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강의 언어

-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 세계 언어로서 영어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국제 유학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 2000 ~ 2012년 사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아일랜드, 남아프리카 등 영어사용국가가 외국인학생 수 증가분의 41%를 차지
- 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 강의를 개설하는 경향이 뚜렷해짐

<표 II-3>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국가

(거의)모든 과정이 영어로 제공되는 국가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다수의 과정이 영어로 제공되는 국가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부분적인 과정만이 영어로 제공되는 국가	벨기에(플레미쉬),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어로 제공되는 과정이 거의 없는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프랑스어권), 브라질, 칠레,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러시아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 영어강의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만으로 강의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음
 - 다른 언어들이 고용기회의 확보에 있어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만으로 강의하는 것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
 - 앞으로 고용주들은 장기적으로 복수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혹은 비영어권에서 영어로 수학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영어만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의 매력이 앞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포함해서 외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있어서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음 (Lasanowski, 2011: 204–205)
- 이중 언어(dual language) 학위과정은 영어 전용 강의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이 사실
 - 국제화시대에 복수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취업에 훨씬 유리
 - 이중 언어 학위과정은 앞으로 영어 전공 학위과정보다 유학생들에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Becker et al., 2009)

나. 프로그램의 질

- 유학대상국가의 선정에 있어 교육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짐
 - 특히,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학의 순위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고 있음
- 개별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에 대한 판단과 학생이동 패턴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주요 유학대상국에 최상위 고등교육기관의 비중이 높은 한편, 급성장하는 유학대상국 내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기관 순위에 등장하는 것은 교육의 질에 관한 인식의 중요성이 증가함을 보여줌

다. 등록금과 생활비의 수준

<표 II-4> 등록금의 수준

내국인 학생보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이 높은 경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러시아,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등록금이 동일한 경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 유학생에게 교육비용을 전액 부과한 국가들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거둠. 실제 아-태 지역 일부 국가는 국제교육을 명백히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의 일부로 취급하며, 수입창출 내지 적어도 원가회수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정책에 착수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 학생에 대한 높은 등록금이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음
- 등록금의 존재 여부가 외국학생들의 유학대상국으로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교육의 질이 보장되고 교육을 통한 기대수익이 높다면, 높은 등록금을

통해서도 외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음

- 유학대상국의 선택은 등록금보다는 전체 패키지(whole study package)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비, 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학의 경제적 가치가 포함됨 (Becker et al., 2009: 21)

- 그러나 유사한 교육의 질과 교육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 등록금 수준은 유학대상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의 유학생 증가세 둔화와 유학시장 점유율 저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수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라. 이민 정책

- 외국인 유학생의 이민에 관한 정책이 유학생 유치에 영향을 미침

※ 최근 일부 OECD 회원국은 유학생의 일시 또는 영구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완화. 이는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 더욱 매력적 요인이 되며 본국의 노동력을 강화

마. 기타 요인

- 교육기관의 질에 대한 평판도, 학위취득 소요기관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연성, 외국 학위의 인정 여부, 모국에서의 고등교육 기회의 정도, 국가 간 지리적 혹은 역사적 연계, 미래의 고용기회, 문화적 영향, 정부의 학점교육정책 등이 영향을 미침

III.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현황 및 특징 분석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2004년 Study Korea Project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4월 현재 89,537명에 이른
 -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총수는 2011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2014년 4월 현재 84,891명에 그침

<표 III-1> 연도별 유학생 수

(매년 4. 1 기준)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학생수(명)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출처 : 교육부

- 유학생의 출신 지역과 편향성이 두드러짐
 - 2014년 현재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86.3%를 차지
※ 2011년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90.2%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소폭으로 줄어든 것임
 -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59.3%를 차지
※ 2011년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의 66.2%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소폭으로 줄어든 것임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에서 유학생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유학생의 다양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표 III-2> 출신 지역별 현황

(2014. 4. 1 기준)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합계
학생수(명)	73,229	1,790	425	4,180	905	4,362	84,891
비 율(%)	86.3	2.1	0.5	4.9	1.1	5.1	100

출처 : 교육부

<표 III-3> 국가별 현황

(2014. 4. 1 기준)

구 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기타	합계
학생수(명)	50,336	3,958	3,126	3,181	3,104	21,186	84,891
비 율(%)	59.3	4.6	3.7	3.7	3.7	25	100

출처 : 교육부

- 과정별로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과정이 37.8%, 대학원이 25.4%, 어학연수 21.8%, 기타연수 15.0%를 차지

- 과정별 유학생의 분포는 대학원, 어학연수, 기타연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표 III-4> 과정별 현황

(2014. 4. 1 기준)

구 分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어학연수	기타연수	계
학생수(명)	32,101	21,535	18,543	12,712	84,891
비 율(%)	37.8	25.4	21.8	15.0	100

출처 : 교육부

- 2014년 현재 자비유학생이 전체의 86.2%를 차지
 - 정부초청장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3.2%를 차지

<표 III-5> 유학형태별 현황

(2014. 4. 1 기준)

구 분	자비유학	우리정부 초청	대학초청	외국정부 파견	기타 (교환학생 등)	합계
학생수(명)	73,138	2,701	6,890	1,042	1,120	84,891
비 율(%)	86.2	3.2	8.1	1.2	1.3	100

출처 : 교육부

- 전체 유학생의 41.5%가 인문사회계열 학생임
 - 공학계와 자연과학계 학생의 비율은 각각 10.8%와 5.2%에 불과

<표 III-6> 계열별 유학생 현황 (어학연수 · 기타연수 종합)

(단위 : 명)

구 분	인문 사회계	공학계	자연 과학계	예체능계	의학계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 계
대학원	13,027	4,645	2,082	635	1,146	-	-	21,535
대학	21,484	4,031	2,208	2,600	202	-	-	30,525
전문대학	721	508	135	212	-	-	-	1,576
어학연수	-	-	-	-	-	18,543	-	18,543
기타연수	-	-	-	-	-	-	12,712	12,712
합 계	35,232	9,184	4,425	3,447	1,348	18,543	12,712	84,891
(%)	41.5	10.8	5.2	4.1	1.6	21.8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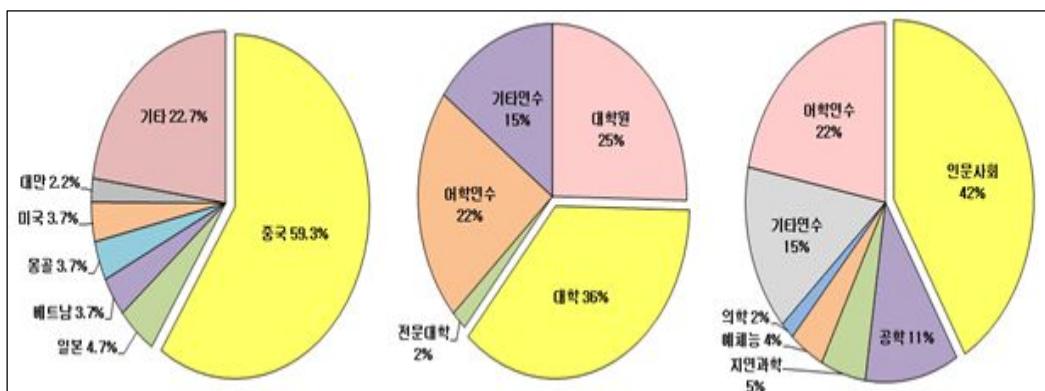
자료: 1. 대학원 : 대학(석사과정, 박사과정),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대학원)
 2. 대학 : 대학교,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대학), 사이버대학(대학), 사내대학(대학)
 학) 각종대학(대학), 교육대학

3. 전문대학 : 전문대학(2년제, 3년제), 기능대학, 전공대학, 원격대학(전문), 사
이버대학(전문), 사내대학(전문), 각종대학(전문)

4. 출처 : 교육부

- 국가별로는 중국인 유학생, 과정별로는 학부생, 계열별로는 인문사회·어학계열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편중 현상은 완화되는 추세
 - ※ 중국인 유학생('12년 64% → '14년 59%), 학부생('12년 44% → '14년 36%), 인문사회·어학계열('12년 67% → '14년 60%)
 - ※ 중국의 학령인구 감소('20년까지 2천만 명 정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중국인 유학생 대폭 증가는 어려움(British Council, 2012)

[그림 III-1] 외국인 유학생 분포 (2014)



- 유학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
 - 2005년 유학생 중 수도권 대학에서 수학하는 비율이 46.92%에서 2007년 42.37%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 현재 이 비율이 57.01%에 달하고 있음
 - 지방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7> 각 연도의 수도권 과정별 유학생 비율

(매년 4월 기준, 단위 : 명)

권역/과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유학생 비율	전문대학	14.31	12.04	9.58	13.65	13.64	18.33	23.63	30.06	32.64	29.44
	대학	41.52	32.82	29.20	31.85	35.41	40.01	43.35	48.30	53.05	55.71
	대학원	76.58	53.32	53.18	53.19	54.20	55.15	53.22	53.73	54.58	55.26
	여학연수	67.77	70.65	59.29	64.63	66.79	69.54	70.66	67.20	67.52	65.19
	기타연수	59.82	52.03	53.60	52.99	58.44	63.35	62.31	58.16	55.46	54.55
	합계	46.92	46.00	42.37	45.95	47.58	50.00	52.09	53.82	56.27	57.01

출처 : 교육부

-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6~7% 대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와 조응할 수 있는 유학생 유치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8> 졸업생 국내취업 현황

(매년 4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구분	졸업생현황					졸업생 국내 취업율
		본국귀국	국내취업	국내진학	미상	계	
2008	학부	2,101	155	1,359	-	3,615	4.29
	대학원	1,288	290	381	-	1,959	14.80
	합계	3,389	445	1,740	0	5,574	7.98
2009	학부	3,230	304	2,246	-	5,780	5.26
	대학원	1,655	290	307	-	2,252	12.88
	합계	4,885	594	2,553	0	8,032	7.40
2010	학부	3,465	195	2,889	1,226	7,775	2.51
	대학원	1,720	503	395	915	3,533	14.24
	합계	5,185	698	3,284	2,141	11,308	6.17
2011	학부	4,402	341	2,661	1,436	8,840	3.86
	대학원	2,307	684	473	1,449	4,913	13.92
	합계	6,709	1,025	3,134	2,885	13,753	7.45
2012	학부	5,654	663	2,265	2,679	11,261	5.89
	대학원	2,735	523	458	2,265	5,981	8.74
	합계	8,389	1,186	2,723	4,944	17,242	6.88
2013	학부	4,777	582	2,033	4,600	11,992	4.85
	대학원	2,943	640	455	3,580	7,618	8.4
	합계	7,720	1,222	2,488	8,180	19,610	6.23
2014	학부	3,990	745	1,643	4,416	10,794	6.9
	대학원	3143	679	525	4,082	8,429	8.05
	합계	7,133	1,424	2,168	8,498	19,223	7.4

자료 : 1. 매년 4월 1일 기준, 전년도 8월 후기 졸업자와 해당년도 2월 전기 졸업자
를 기준으로 집계(KEDI)
2. 출처 : 교육부

2. 과정별 유학 신입생 추세

- 2011년을 정점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입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 들어오는 유학생 수는 2008년 25,262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50,759명에 이른
- 신입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총수는 감소하는 이유는 1년 이내의 단기 체류 과정인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의 수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임
 - 교환학생이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3.79%였으나, 2014년에는 28.88%로 증가
 - 어학연수생이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1.00%였으나, 2014년에는 34.29%로 증가
 - 반면, 학사과정생이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38.02 %에서 2014년에는 18.02%로 급격히 감소
 - 석사와 박사과정생이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각각 17.56%와 4.29%에서 2014년 각각 13.55%와 3.20%로 감소
- 유학 신입생의 이러한 추세는 향후 유학생 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학연 수생의 국내 학위과정 진급과 교환학생의 국내 정규과정으로의 회귀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표 III-9> 과정별 신입생 비중: 2008 ~ 201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환학생	3,484 (13.79)	5,170 (17.09)	5,907 (18.50)	7,093 (21.57)	9,584 (24.05)	11,201 (25.36)	14,657 (28.88)
어학연수	5,306 (21.00)	5,312 (17.56)	5,967 (18.68)	8,246 (25.08)	12,659 (31.77)	15,538 (35.18)	17,406 (34.29)
전문학사	1,322 (5.23)	1,048 (3.46)	756 (2.37)	789 (2.40)	1,200 (3.01)	824 (1.87)	855 (1.68)
학사	9,604 (38.02)	11,697 (38.67)	11,547 (36.16)	8,279 (25.18)	8,216 (20.62)	8,014 (18.14)	9,149 (18.02)
석사	4,435 (17.56)	5,587 (18.47)	6,301 (19.73)	6,991 (21.26)	6,689 (16.79)	6,872 (15.56)	6,877 (13.55)
박사	1,084 (4.29)	1,393 (4.61)	1,425 (4.46)	1,427 (4.34)	1,417 (3.56)	1,451 (3.28)	1,624 (3.20)
기타	27 (0.11)	39 (0.13)	34 (0.11)	54 (0.16)	84 (0.21)	273 (0.62)	191 (0.38)
	25,262 (100.00)	30,246 (100.00)	31,937 (100.00)	32,879 (100.00)	39,849 (100.00)	44,173 (100.00)	50,759 (100.00)

* (): 전체대비 해당 과정 비중(%)

출처 : 법무부

3. 외국인 유학생의 과정별 · 대학별 분포

가. 4년제 대학 전체

- 과정구분 없이 대학원생, 학부생, 어학연수생, 교환학생을 모두 합친 4년제 대학 전체 유학생의 대학별 분포는 <표 III-10>과 같음
 - 유학생이 2,000명 이상의 대학은 9개교로서 모두 수도권에 위치
 -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의 대학은 모두 22개교로서 15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7개교는 지방에 위치
 - 유학생이 500명 이상의 대학은 모두 47개교로서 전체 유학생의 75.9%를 차지
 - 유학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모두 116개교로서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학생 수로는 전체의 96.8%를 차지
 - 유학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모두 136개로서 전체의 6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학생 수로는 전체의 98.8%를 차지
 -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70%만이 유학생을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이라 할 수 있음

<표 III-10> 4년제 대학 유학생의 분포 (전체: 대학원생+학부생+어학연수생+교환학생)

학생 수	대학 수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개교)	지방 (개교)
2,000 이상	9개 대학 (4.6%)	9 (4.6%)	26,457 (33.2%)	26,457 (33.2%)	2,940	9	-
1,000-1,999	13개 대학 (6.6%)	22 (11.2%)	16,729 (21.0%)	43,186 (54.2%)	1,287	6	7
500-999	25개 대학 (12.8%)	47 (24.0%)	17,305 (21.7%)	60,491 (75.9%)	692	10	15
300-499	19개 대학 (9.7%)	66 (33.7%)	7,405 (9.3%)	67,896 (85.2%)	390	4	1
100-299	50개 대학 (25.5%)	116 (59.2%)	9,249 (11.6%)	77,145 (96.8%)	185	13	37
50-99	20개 대학 (10.2%)	136 (69.4%)	1,572 (2.0%)	78,717 (98.8%)	79	9	11
20-49	21개 대학 (10.7%)	157 (80.1%)	742 (0.9%)	79,459 (99.7%)	35	9	12
1-19	38개 대학 (19.4%)	195 (99.5%)	234 (0.3%)	79,693 (100.0%)	6	11	27
0	1개 대학 (0.5%)	196 (100.0%)	0 (0.0%)	79,693 (100.0%)	0		1
전체	196개 대학 (100.0%)	196 (100.0%)	79,693 (100.0%)	79,693 (100.0%)	407	71개 대학	125개 대학

○ 4년제 대학 학부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학별 유학생 분포는 <표 III-11>과 같음

- 학부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6개교로서, 전체 유학생의 24.1%를 차지
- 학부생이 500명 이상인 대학은 14개교로서, 전체 유학생의 43.4%를 차지
- 학부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79개교로서, 전체 유학생의 90.0%를 차지

- 학부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106개교로서 전체의 5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유학생의 96.5%를 차지
-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부과정에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54.1%를 차지하는 106개교에 불과
- 이중 수도권 대학이 39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67개교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의 범위도 학부생 50명 이상인 대학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표 III-11> 4년제 대학 학부과정 유학생의 대학별 분포

학생 수	대학 수 (구간전체)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구간전체)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개교)	지방 (개교)
1,000 이상	6개 대학 (3.1%)	6 (3.1%)	7,234 (24.1%)	7,234 (24.1%)	1,206	6	-
500-999	8개 대학 (4.1%)	14 (7.2%)	5,812 (19.3%)	13,046 (43.4%)	727	6	2
300-499	16개 대학 (8.2%)	30 (15.4%)	5,969 (19.9%)	19,015 (63.3%)	373	5	11
100-299	49개 대학 (25.0%)	79 (40.4%)	8,023 (26.7%)	27,038 (90.0%)	164	14	35
50-99	27개 대학 (13.8%)	106 (54.1%)	1,966 (6.5%)	29,004 (96.5%)	73	8	19
20-49	23개 대학 (11.7%)	129 (65.8%)	781 (2.6%)	29,785 (99.1%)	34	7	16
1-19	48개 대학 (24.5%)	177 (90.3%)	272 (2.6%)	30,057 (100.0%)	6	20	28
0	19개 대학 (9.7%)	196 (100.0%)	0 (0.0%)	30,057 (100.0%)	0	5	14
전체	196개 대학 (100.0%)	196 (100.0%)	30,057 (100.0%)	30,057 (100.0%)	153	71개 대학	125개 대학

○ 대학원생의 대학별 분포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대학원생이 50명 이상인 대학이 80개교로서 전체의 40.8%이나, 유학생 수의 91.0%를 차지
- 수도권 대학이 24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56개교임
-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대상 대학을 대학원생 50명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표 III-12> 대학원생의 대학별 분포

학생 수	대학 수 (구간 전체)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구간 전체)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개교)	지방 (개교)
1,000 이상	1개 대학 (0.5%)	1 (0.5%)	1,041 (5.2%)	1,041 (5.2%)	1,041	1	-
500-999	7개 대학 (3.6%)	8 (4.1%)	4,764 (23.9%)	5,805 (29.1%)	681	6	1
300-499	12개 대학 (6.1%)	20 (10.2%)	4,775 (23.9%)	10,580 (53.0%)	398	5	7
100-299	33개 대학 (16.8%)	53 (27.0%)	5,707 (28.6%)	16,287 (81.6%)	173	12	21
50-99	27개 대학 (13.8%)	80 (40.8%)	1,883 (9.4%)	18,170 (91.0%)	70	12	15
20-49	41개 대학 (20.9%)	121 (61.7%)	1,368 (6.9%)	19,538 (97.9%)	33	9	32
1-19	51개 대학 (26.0%)	172 (87.8%)	427 (2.1%)	19,965 (100.0%)	8	22	29
0	24개 대학 (12.2%)	196 (100.0%)	0 (0.0%)	19,965 (100.0%)	0	4	20
전체	196개 대학 (100.0%)	196 (100.0%)	19,965 (100.0%)	19,965 (100.0%)	102	71개 대학	125개 대학

- 4년제 대학 어학연수생의 대학별 분포는 <표 III-13>에 정리되어 있음
 -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도 97개 대학이 (전체 대학의 49.5%) 어학연수생의 97.6%를 차지하고 있음
 - 97개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이 30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67개교임
 - 이는 약 절반 정도의 대학만 어학연수생을 교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III-13> 어학연수생의 대학별 분포

학생 수	대학 수 (구간 전체)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구간 전체)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지방
500 이상	9개 대학 (4.6%)	9 (4.6%)	7,526 (43.1%)	7,526 (43.1%)	836	9	-
300-499	6개 대학 (3.1%)	15 (7.7%)	2,463 (14.1%)	9,989 (57.2%)	411	4	2
100-299	24개 대학 (12.2%)	39 (19.9%)	4,100 (23.5%)	14,089 (80.7%)	171	11	13
50-99	27개 대학 (13.8%)	66 (33.7%)	1,904 (10.9%)	15,993 (91.6%)	71	6	19
20-49	31개 대학 (15.8%)	97 (49.5%)	1,043 (6.0%)	17,036 (97.6%)	34	7	24
1-19	39개 대학 (19.9%)	136 (69.4%)	425 (2.4%)	17,461 (100.0%)	11	13	26
0	60개 대학 (30.6%)	196 (100.0%)	0 (0.0%)	17,461 (100.0%)		22	38
전체	196개 대학 (100.0%)	196 (100.0%)	17,461 (100.0%)	17,461 (100.0%)	89	71개 대학	125개 대학

-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인 대학이 100개교인데 (전체의 51.0%), 전체 교환학생의 96.5%를 차지
 - 이 중 수도권 대학이 38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62개교임

<표 III-14> 기타 학생의 대학별 분포

학생 수	대학 수 (구간 전체)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구간 전체)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지방
500 이상	2개 대학 (1.0%)	2 (1.0%)	1,406 (11.5%)	1,406 (11.5%)	703	2	-
300-499	8개 대학 (4.1%)	10 (5.1%)	3,085 (25.3%)	4,491 (36.8%)	386	5	3
100-299	26개 대학 (13.3%)	36 (18.4%)	4,278 (35.0%)	8,769 (71.8%)	165	13	13
50-99	26개 대학 (13.3%)	62 (31.6%)	1,730 (14.2%)	10,499 (86.0%)	67	10	16
20-49	38개 대학 (19.4%)	100 (51.0%)	1,277 (10.5%)	11,776 (96.5%)	34	8	30
1-19	50개 대학 (25.5%)	150 (76.5%)	433 (3.5%)	12,209 (100.0%)	9	18	32
0	46개 대학 (23.5%)	196 (100.0%)	0 (0.0%)	12,209 (100.0%)	0	15	31
전체	196개 대학 (100.0%)	196 (100.0%)	12,209 (100.0%)	12,209 (100.0%)	62	71개 대학	125개 대학

- 전문대의 경우 유학생이 100명 이상인 대학은 8개에 불과하며, 20명 이상을 유치하고 있는 대학은 38개교로서 전체의 41.3%이나, 전체 전문대 유학생의 88.1%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I-15> 전문대 유학생의 대학별 분포

학생 수	대학 수 (구간 전체)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구간 전체)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개교)	지방 (개교)
100 이상	8개 대학 (8.7%)	8 (8.7%)	1,219 (42.1%)	1,219 (42.1%)	152	2	6
50-99	11개 대학 (12.0%)	19 (20.7%)	765 (26.4%)	1,984 (68.6%)	70	9	2

20-49	19개 대학 (17.4%)	38 (41.3%)	567 (19.6%)	2,551 (88.1%)	30	6	13
10-19	16개 대학 (58.7%)	54 (58.7%)	236 (8.2%)	2,787 (96.3%)	15	3	13
1-9	37개 대학 (40.2%)	91 (98.9%)	107 (3.7%)	2,894 (100.0%)	3	10	27
0	1개 대학 (1.1%)	92 (100.0%)	0 (0.0%)	2,894 (100.0%)	0	-	1
전체	92개 대학 (100.0%)	92 (100.0%)	2,894 (100.0%)	2,894 (100.0%)	31	30개 대학	62개 대학

-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33개 대학 중 36.4%에 해당하는 12개교가
전체 대학원대학 유학생의 91.8%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I-16> 대학원대학 유학생의 대학별 분포

학생 수	대학 수 (구간 전체)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구간 전체)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지방
300 이상	1개 대학 (3.0%)	1 (3.0%)	303 (17.3%)	303 (17.3%)	303	-	1
100-299	7개 대학 (21.2%)	8 (24.2%)	1,034 (59.1%)	1,337 (76.4%)	148	6	1
50-99	4개 대학 (12.1%)	12 (36.4%)	271 (15.5%)	1,608 (91.8%)	68	3	1
20-49	1개 대학 (3.0%)	13 (39.4%)	27 (1.5%)	1,635 (93.4%)	27	1	-
10-19	3개 대학 (9.1%)	16 (48.5%)	48 (2.7%)	1,685 (96.1%)	16	2	1
1-9	17개 대학 (51.5%)	33 (100.0%)	68 (3.9%)	1,751 (100.0%)	4	15	2
0	0개 대학 (0.0%)	33 (100.0%)	0 (0.0%)	1,751 (100.0%)	0	-	-
전체	33개 대학 (100.0%)	33 (100.0%)	1,751 (100.0%)	1,751 (100.0%)	31	27개 대학	6개 대학

4.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
- 대학별 설문 응답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응답 대학의 수 : 105개
 - 응답 대학원의 수 : 68개
 - 응답 학부의 수 : 91개
 - 응답 대학원+학부의 수 : 159개
 - 응답 어학연수 과정의 수 : 73개
 - 응답 전문대의 수 : 29개
- 학생별 설문 응답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응답 학생 수 : 1,960명
 - 응답 대학원 학생의 수 : 376명
 - 응답 학부 학생의 수 : 785명
 - 응답 전문대 학생 수 : 316명
 - 응답 어학연수 학생의 수 : 384명
- 과정별·대학 소재지별 응답 학생의 분포는 다음의 <표 III-17>과 같음

<표 III-17> 과정별·대학 소재지별 응답 학생의 분포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대학원	73명	54명	184명
학부	137명	81명	538명
어학연수	56명	40명	166명
전문대	128명		269명

- 출신국별·과정별 응답 학생 분포는 다음의 <표 III-18>과 같음

<표 III-18> 출신국별·과정별 응답 학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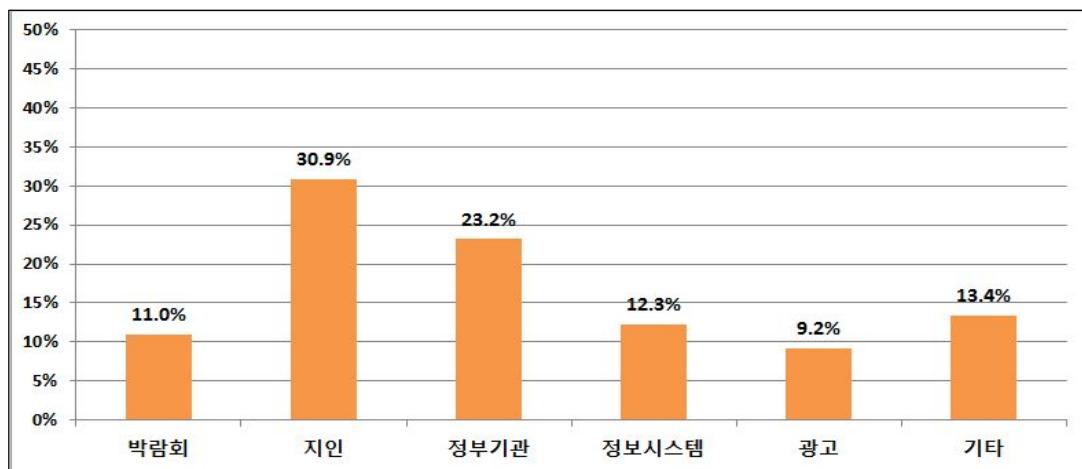
	대학원	학부	전문대
중국	202명	526명	247명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109명	157명	54명
러시아 및 CIS국가	8명	16명	10명
아메리카	14명	21명	3명
아프리카	17명	12명	1명
유럽	3명	11명	0명
중동	4명	1명	0명

나. 한국으로 유학 온 계기

-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온 계기는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친척·지인을 통한 소개가 30.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국의 교육 관련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한 안내가 23.2%를 차지함

- 이 두 가지 계기가 전체의 54.1%를 차지하여,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유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출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 아시아 국가, 러시아 및 CIS 국가, 아메리카 학생의 경우에는 지인 소개, 정부기관을 통한 안내 순이었으나,
 - 아프리카, 유럽, 중동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을 통한 안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인을 통한 소개였음
 -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

[그림 III-2] 한국으로 유학 온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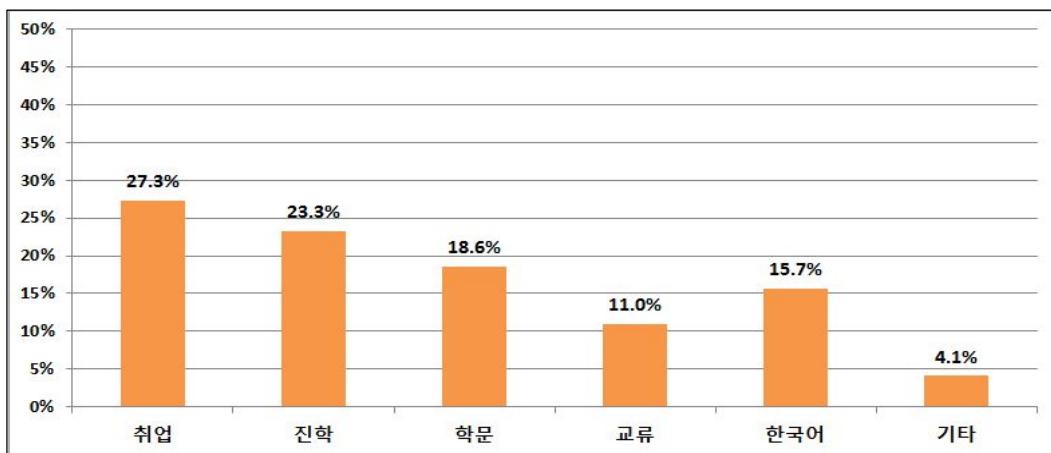


- 과정별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계기는 차이가 없었는데, 모두 지인 소개, 정부기관을 통한 안내 순으로 나타남

다. 한국으로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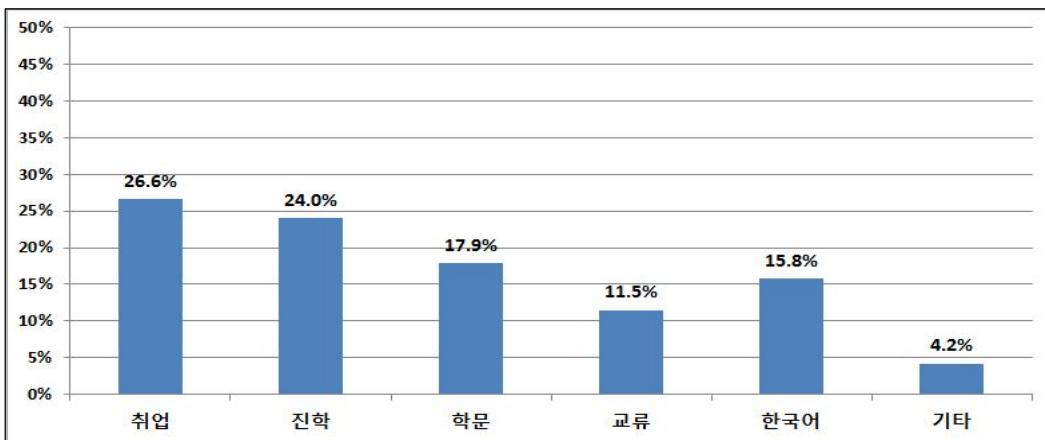
- 한국으로 유학 온 목적은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27.3%), 더 좋은 진학기회 획득(23.3%), 다양한 학문적 경험(18.6%), 한국어 등 외국어 역량 강화(15.7%),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11.0%), 기타(4.1%) 순으로 나타남
 - 출신지역별로 한국으로 유학 온 목적이 약간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중국과 아시아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기회, 진학기회, 학문적 경험 순으로 나타남
 - 아메리카 출신 학생들과 유럽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적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출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학 기회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출신 지역에 따라 맞춤형 유학 정책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III-3] 전체 설문 응답 학생의 한국으로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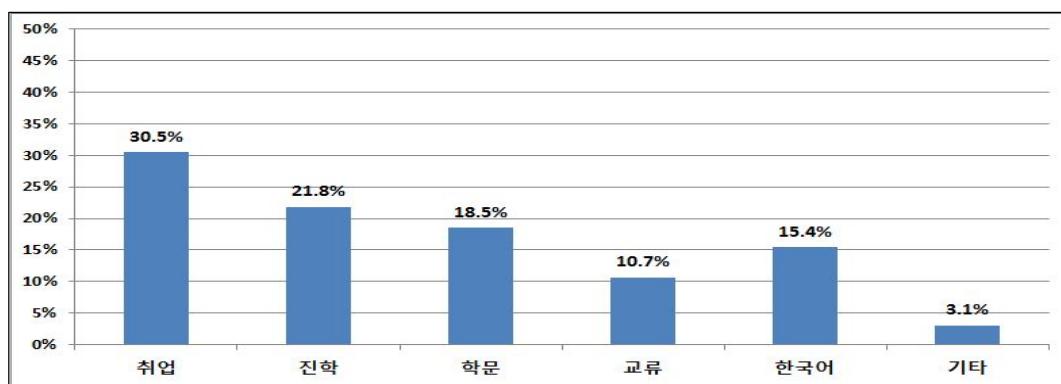


* 기타 : 전공(6명, 0.3%), 종교(4명, 0.2%), 가족(4명,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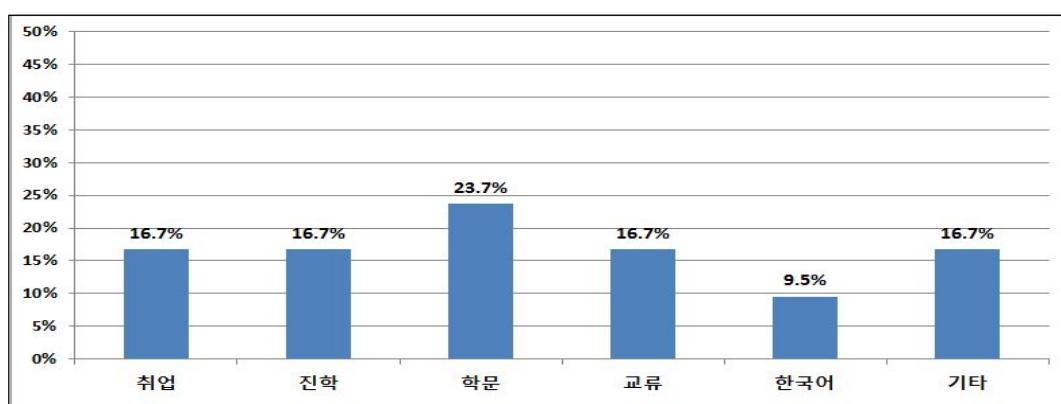
[그림 III-4] 중국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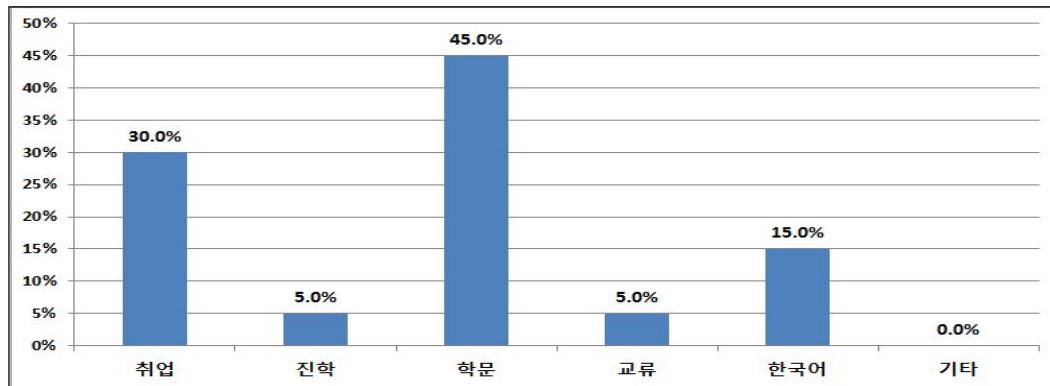
[그림 III-5]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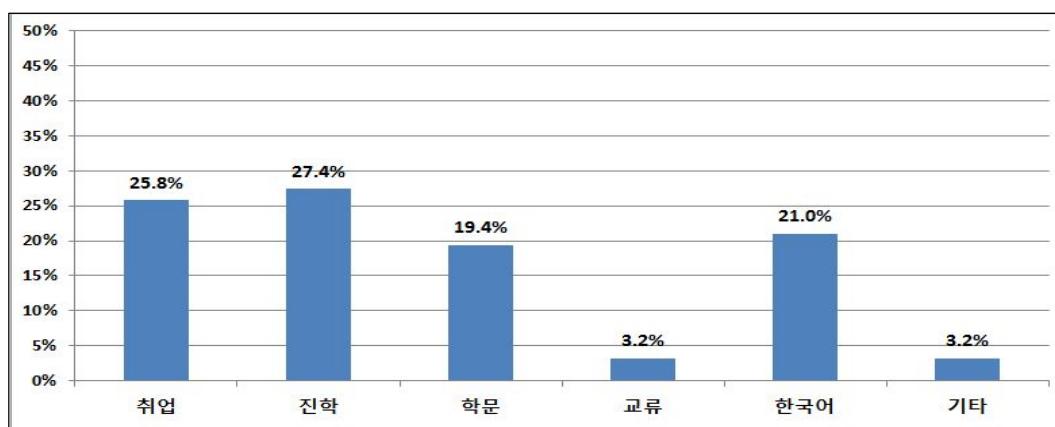
[그림 III-6] 아메리카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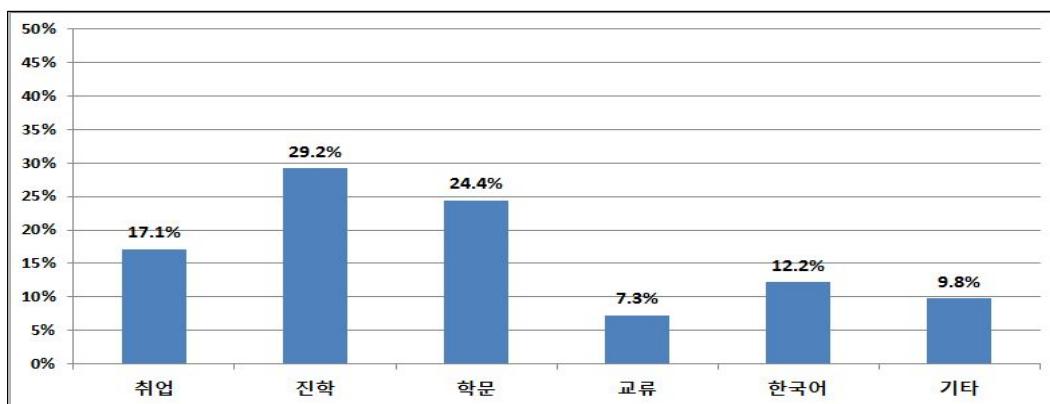
[그림 III-7] 유럽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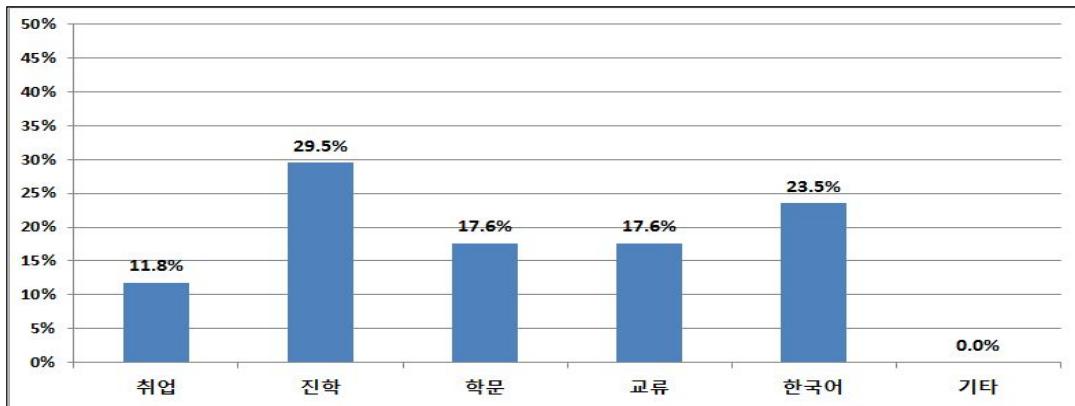
[그림 III-8] 러시아 및 CIS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그림 III-9] 아프리카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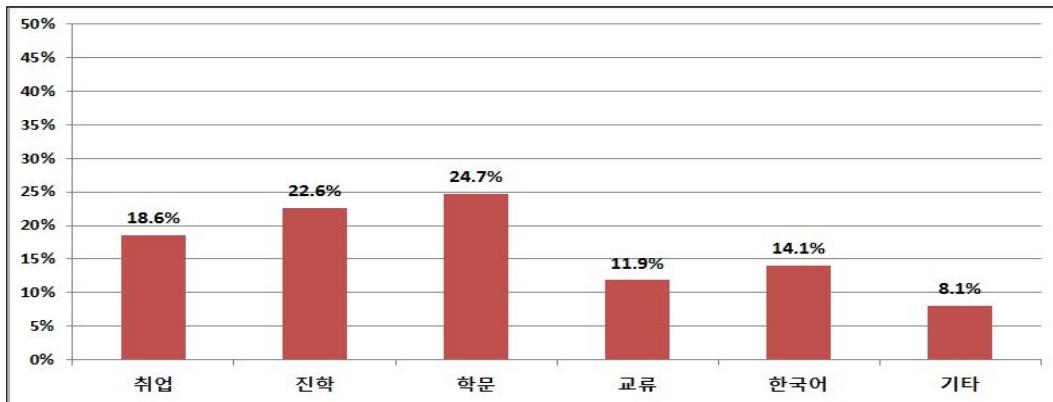
[그림 III-10] 중동 국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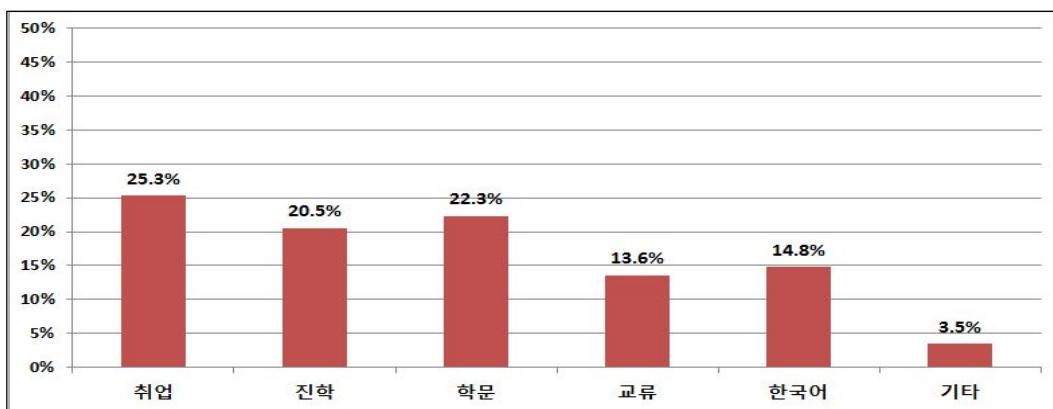
○ 과정별로도 한국에 유학 온 목적이 상이하게 나타남

-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학문적 경험 → 진학기회 → 취업기회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 4년제 대학 학부생의 경우에는 취업기회 → 학문적 경험 → 진학기회 순으로 나타남
- 전문대 학생의 경우에는 취업기회가 매우 높고, 진학기회, 학문적 경험 순으로 나타남
-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진학기회 → 취업기회 → 한국어 습득 순으로 나타남
-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취업기회 → 한국어 습득 → 다양한 학문적 경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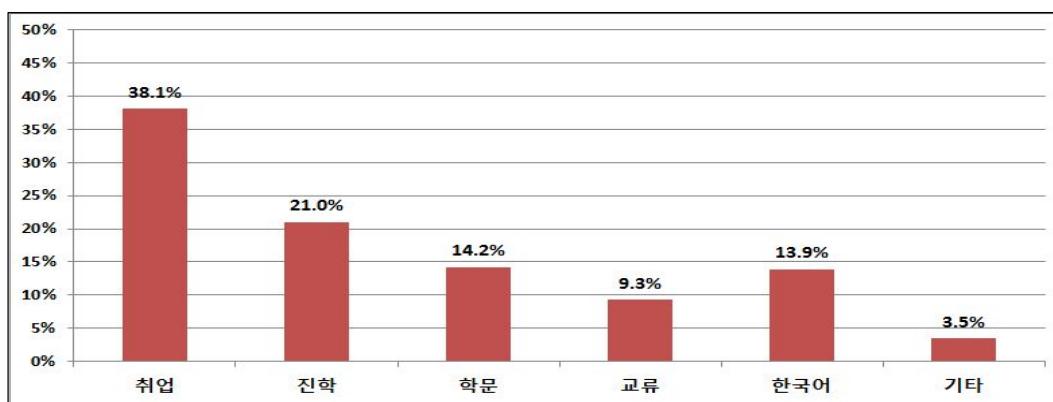
[그림 III-11] 대학원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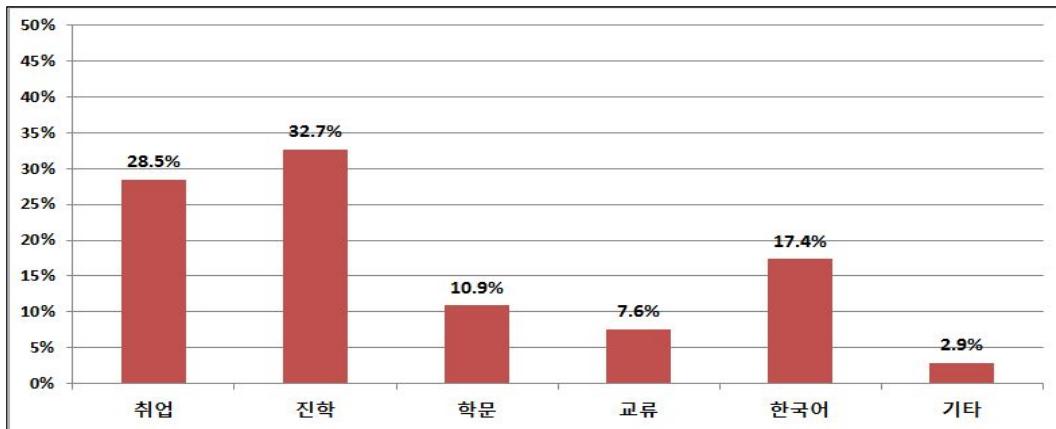
[그림 III-12] 4년제 대학 학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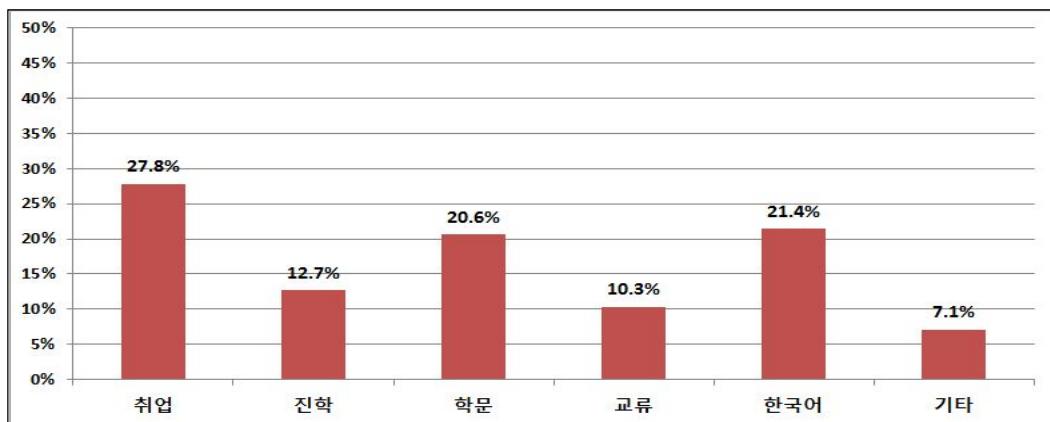
[그림 III-13] 전문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그림 III-14] 어학연수 학생의 유학 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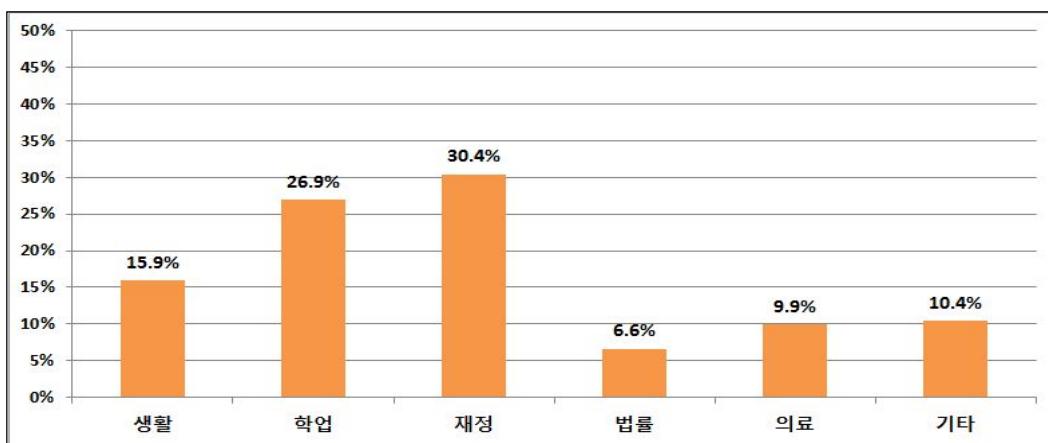
[그림 III-15] 기타 학생의 유학 온 목적



라. 유학생 활의 어려움

- 유학생들이 어려움으로는 재정적 부담(비용)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업(26.9%), 생활(15.9%), 의료(9.9%), 법률(6.6%)로 나타남
 - 유학생 활의 어려움에 대한 비중은 출신지역별, 과정별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 학업과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III-16] 전체 학생의 유학생활의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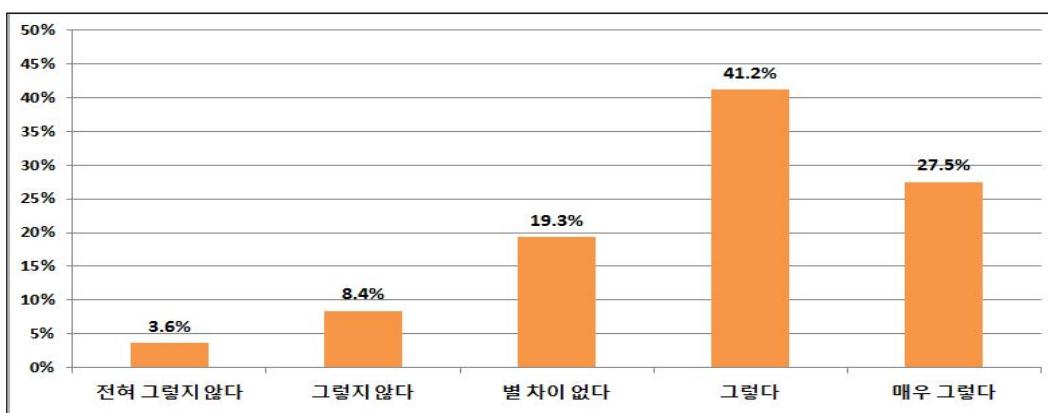


* 기타 : 언어(31명, 1.6%), 음식(28명, 1.5%), 없음(13명, 0.7%), 문화(9명, 0.5%)

마. 취업 비자의 유용성

- “만약 한국에 온 유학생의 가족에게 취업비자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유학생이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41.2%의 유학생이 그렇다, 27.5%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음

[그림 III-17] 취업비자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



IV. 2015~2023년 유학생 수 추정

1. 과정별 신입생 수 동향

-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신규로 입국하는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소폭으로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생은 1개 연도만 한국에 머물지만, 유학생이 감소한 학부과정과 전문학사과정 생의 영향은 2~4년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표 IV-1> 과정별 신입생 수 : 2008-2015년

(): 전년대비 증감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환학생	3,484	5,170 (48.39)	5,907 (14.26)	7,093 (20.08)	9,584 (35.12)	11,201 (16.87)	14,657 (30.85)
어학연수	5,306	5,312 (0.11)	5,967 (12.33)	8,246 (38.19)	12,659 (53.52)	15,538 (22.74)	17,406 (12.02)
전문학사	1,322	1,048 (-20.73)	756 (-27.86)	789 (4.37)	1,200 (52.09)	824 (-31.33)	855 (3.76)
학사	9,604	11,697 (21.79)	11,547 (-1.28)	8,279 (-28.30)	8,216 (-0.76)	8,014 (-2.46)	9,149 (14.16)
석사	4,435	5,587 (25.98)	6,301 (12.78)	6,991 (10.95)	6,689 (-4.32)	6,872 (2.74)	6,877 (0.07)
박사	1,084	1,393 (28.51)	1,425 (2.30)	1,427 (0.14)	1,417 (-0.70)	1,451 (2.40)	1,624 (11.92)
기타	27	39 (44.44)	34 (-12.82)	54 (58.82)	84 (55.56)	273 (225.00)	191 (-30.04)
합계	25,262	30,246	31,937	32,879	39,849	44,173	50,759

- 다행히, 2014년부터는 모든 과정에서 신규 유학생 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섬
 - 특히,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었던 학사과정 유학생이 2013~14년간에는 14.2%가 증가하고 있음
 -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증가율이 최근 3년 간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유는 ‘한류 열풍’으로 풀이됨
 - 학사 과정생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이유는 2011~13년간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도입에 따라 유학생 유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대학들이 조정국면을 거쳐 다시금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로 돌아선 때문으로 보임
 - 석사와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특히, 박사 과정생은 최근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전문학사는 여전히 소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함
 - 어학연수생의 경우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음
 -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경향이 크지만, 교환학생 이수 후 상위과정으로 한국에 유학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학사, 석·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함.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BK-21 PLUS, CK 등)에 유학생 유치 실적을 지표화해야 함

2. 유학생 수 추정

1) 유학생 증가율(신입생 증가율)을 계산하기 위해 최근 연도의 비중이 높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6년 간 평균 증가율(A)을 계산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3년 간 평균 증가율(B)을 계산
- 2013년에서 2014년 간의 증가율 (C)을 구한 후
⇒ (A+B+C)/3의 방법으로 증가율을 계산

※ 계산식의 논거

- 6년간의 평균 증가율만 사용할 경우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최근 1년 증가율만 사용할 경우 이례적인 경향이 과대 반영되는 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년 평균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 1년 증가율의 평균을 사용
-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증가율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지만 전체적인 경향 까지도 반영할 수 있음

2) 위 방법을 통해 계산된 증가율

- 교환학생 : 28.9%
- 어학연수 : 21.5%
- 전문학사 : 2.9%
- 학사 : 6.1%
- 석사 : 2.5%
- 박사 : 8.0%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는 위 방법을 통해 계산된 증가율을 2023년 까지 적용
- 그러나 교환학생, 어학연수는 지난 6년간의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에 평균 증가율 6.1%만을 적용 (학사와 동일한 증가율 적용)
- 기타는 연 10%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

3) 위의 방법을 통해 2015~2023년까지 매년 각 과정별로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 수 추정

<표 IV-2> 과정별 신입생 수 (추정) : 2015~202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환학생	15,551	16,500	17,506	18,574	19,707	20,909	22,185	23,538	24,974
어학연수	18,468	19,594	20,790	22,058	23,403	24,831	26,346	27,953	29,658
전문학사	880	905	932	959	986	1,015	1,044	1,075	1,106
학사	9,707	10,299	10,927	11,594	12,301	13,052	13,848	14,693	15,589
석사	7,049	7,225	7,406	7,591	7,781	7,975	8,175	8,379	8,588
박사	1,754	1,894	2,046	2,209	2,386	2,577	2,783	3,006	3,246
기타	210	231	254	280	308	338	372	409	450
합계	53,619	56,649	59,861	63,264	66,872	70,697	74,752	79,052	83,611

4) 연도별 총 유학생 수 추정

- 각 연도별 입학생 수로부터 특정 연도의 총 유학생 수를 추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 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입학생 수를 수학 연한 만큼 더한 수와 실제 유학생 수를 비교하여 얼마나 편차가 나는지를 계산

- ① 예를 들면, 학부생의 경우 4년간 수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1~14년 입학생의 합과 2014년 학부 유학생 총수의 비교,
2010~13년 입학생의 합과 2013년 학부 유학생 총수의 비교,
2009~12년 입학생의 합과 2012년 학부 유학생 총수의 비교를 통해 평균 편차를 계산
- 학부생의 경우 실제 유학생 수는 지난 4년 간 입학생 수 합계의 93.6%로 나타남
 - 따라서 2015년 학부 유학생 수를 총수를 계산할 때는 2012~15년 간 학부 입학생 수를 모두 더한 후, 이 숫자에 93.6%를 곱하여 유학생 총수를 계산
 -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2023년까지 학부생 총수를 계산
- ② 석사생의 경우는 수학기간을 2.5년으로 보고, 최근 3년간의 석사과정생 수와 이전 2.5개년 동안의 입학생 수를 비교하여 평균 편차를 계산
- 석사과정생의 경우 평균 편차는 92.9%로 나타남
- ③ 박사생의 경우는 학부생과 같이 수학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평균편차를 계산
- 박사과정생의 평균 편차는 89.2%로 나타남
- ④ 전문학사의 경우 수학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평균 편차를 구함
- 전문학사의 평균 편차는 97.1%로 나타남
- ⑤ 교환학생, 어학연수생, 기타연수생의 경우는 당해 연도 신규입학생을 총 학생 수로 간주하여 계산

<표 IV-3> 연도별·과정별 유학생 추정치 : 2015-202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환학생	15,551	16,500	17,506	18,574	19,707	20,909	22,185	23,538	24,974
어학연수	18,468	19,595	20,790	22,058	23,404	24,831	26,346	27,953	29,658
전문학사	1,684	1,733	1,784	1,835	1,889	1,943	2,000	2,058	2,117
학사	32,841	34,790	37,517	39,806	42,234	44,811	47,544	50,444	53,521
석사	16,129	16,455	16,866	17,288	17,720	18,163	18,617	19,083	19,560
박사	5,571	5,997	6,528	7,050	7,614	8,223	8,881	9,591	10,358
기타	210	231	254	280	307	338	372	409	450
합계	90,455	95,301	101,245	106,891	112,875	119,218	125,944	133,076	140,639

V.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1. 주요국의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가. 미국

<표 V-1> 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단위 : 명, 백만 달러)

총 유학생 수 (고등교육 기관) (2013-14학년도 기준)	886,052명
(2012-13학년도)	819,644명
유학생을 통한 순수입 (2012-13)	\$23,996
등록금 수입	\$17,702
생활비 수입	\$14,715
총 수입	\$32,417
- 미국 정부 및 기관의 지원	- \$8,815
+ 가족의 생활비 수입	+ \$393
고용 창출 효과	313,260명
직접 고용 창출 효과	114,812명
간접 고용 창출 효과	198,448명

출처 : NAFSA(2013). The Economic Benefits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U.S. Economy.

- 대학생 중 유학생의 비율: 3.5%
 - 유학생이 소수의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
 - 25개 대학이 전체 유학생의 20%를 차지
 - 상위 200위권 대학의 유학생 비율은 11.4%

나. 영국

<표 V-2> 영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단위 : 명, 백만 £)

총 유학생 수 (고등교육 기관) (2013-14학년도 기준) (2011-12학년도)	425, 265명 488, 000명
고등교육 관련 수입 합계 (2011)	£10, 810
등록금 수입 (장학금 제외)	£3, 660
생활비 수입	£6, 160
기타	£1, 000
영어 교육 (등록금 및 생활비)	£2, 000
초중등	£620

출처 : HM Government. (2013). International Education: Global Growth and Prosperity: An Accompanying Analytical Narrative

- 2020년까지 (고등교육 기관) 유학생이 연 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명문대의 경우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학생 유치에 소극적인 반면, 다른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임
- 대부분의 영국 대학들은 agent를 활용
 - 첫 1년 동안의 등록금 수입의 10%를 커미션으로 지불
 - 호주의 경우에는 13%를 지불
- Agent에 대한 질 관리
 - 개별 대학의 경우 합법적 계약을 통해 질 관리
 - British Council’s Agent Strategy를 통해 관리 : Agent Training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 비자 발급 요건 등에 관한 교육 시행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시행
 - British Council의 교육을 받은 후 등록한 agent에 대한 리스트 제공
- 영국은 2015년까지 유학 희망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25% 감소시키는 비자 정책을 도입
- 영어능력 및 재정능력 강화, 학업 중 취업시간 축소, 졸업 후 2년 간 job seeking을 허용하는 비자제도 철폐 등

다. 호주

<표 V-3> 호주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학생 수 (2014년)	수입 (2011년)
고등교육 : 241,617명	고등교육 : \$103억 (전체의 65.6%)
직업교육 : 132,011명	총 수입 \$ 157억
초·중등 : 17,350명	
영어교육 : 111,030명	
기타 : 32,862명	

- 2020년까지 유학생 520,000명 유치 목표
 - 2012년 402,000명에서 117,000명 증가
 - 191억 달러의 수입 효과
- 유학생 증가 추이의 시나리오
 - 2%, 5%, 7%
-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21.3%를 차지 (2011년)
 - 영국 : 16%
 - 캐나다 : 6%
 - 미국 : 3.5%
- International Education Advisory Council에서 유학생 문제의 조정을 위하여 Ministerial Coordinating Concil on International Education (MCCIE) 제안
 - Department of Tertiary Education, Skills, Science and Research 장관이 위원장
 - 교육, 이민정책, 마케팅의 분절화 극복 필요

- 호주의 유학 비용 (등록금 + 생활비) : \$44,000
 - 미국 : \$37,000
 - 영국 : \$30,000
- 고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과 취업 기회 확대에 주력
- 호주 대학은 commuter-based model에 기초
 - 미국은 residency-based model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유학생이 기숙사가 아니라 민간 시설(private accommodation) 을 이용
- 비자 정책
 - Knight Review 이후 전공 연계를 폐지하고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2~4년 취업 기회를 허용
- Agent의 활용
 - 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Management System (PRISMS)를 활용한 질 관리

라. 캐나다

<표 V-4> 캐나다 유학생 수 및 수입(2010년)

(단위 : 명, 백만 달러)

	학생 수	학생비율	총 수입	1인당 수입
초·중등	35,140	16.1%	\$763,047,000	\$21,710
직업학교	20,240	9.3%	\$672,267,000	\$33,210
고등교육 기관	116,890	53.6%	\$3,955,640,000	\$33,840
기타 후기 중등교육 기관	36,900	16.9%	\$1,229,005,000	\$33,310
기타	9,045	4.1%	\$301,988,000	\$33,390
합계	218,245	100.0%	\$6,921,947,000	\$31,720 (평균)
영어교육			\$788,162,162	
총합계			\$7,710,109,162	

출처: Roslyn Kunin & Associates, Inc. (2012).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 Canada – An Update. Final Report.

마. 뉴질랜드

<표 V-5> 뉴질랜드 유학생 수 및 수입(2010년)

(단위 : 명, 백만 달러)

	학생 수	총 등록금 수입	평균 등록금 수입
초등	2,536	\$11,126	\$4,387
중등	13,107	\$107,774	\$8,223
직업교육	11,864	\$94,944	\$8,003
대학	17,935	\$308,906	\$17,224
영어교육	18,046	\$38,312	\$2,123
기타 사립 고등교육 기관	28,244	\$181,987	\$6,443
		\$743,049	\$8,100 (평균)
1인당 평균 생활비	91,732		\$17,400

출처 : Infometrics. (2013). 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12/13 for Education New Zealand.

바. 유럽 국가

<표 V-6> 유학생 경제적 효과 (1인 당, 연간)

(2011년 기준)

	생활비 지출	유학생 수	총 수입 (백만 €)	고용 창출 효과
독일	€9,528	161,000	€1,534	0.14
네덜란드	€11,400	34,000	€388	0.15
오스트리아	€10,200	59,000	€602	0.15
폴란드	€4,800	24,000	€116	0.23
스위스	€19,500	23,000	€449	0.18
스페인	€9,000	73,000	€657	0.16

출처: DAAD. (2013). The Financial Impact of Cross-border Student Mobility on the Economy of the Host Country.

주) 독일의 생활비는 [www.internationale-studierende.de/en/prepare_your_studies](http://www.internationale-studierende.de/en/prepare_your_studies_financing/costs_of_living)
 /financing/costs of living 참조, 오스트리아의 생활비는 www.studyinaustria.at 참조

2.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 추정

가. 대학원 등록금 수입

1) 분석 방법

- 대학원생 없는 학교 제외
- 대학원생 수를 기입하지 않은 학교 제외
- 등록금 액수가 지나치게 낮은 학교 제외 (예: 17,000원)

2) 분석 대상 학교

- 65개 대학 응답
- 총 학생 수 : 7,092명

3) 등록금 수입

- 등록금 총액 : 24,224,270,000원
- 장학금 총액 : 17,736,242,000원
- (장학금 지급률 : 73.2%)

$$\circ 1\text{인당 평균 등록금} = 24,224,270\text{원}/7,092\text{명} = 3,415,720\text{원}$$

$$\circ 1\text{인당 평균 장학금} = 17,736,242,000\text{원}/7,092\text{명} = 2,500,950\text{원}$$

$$\circ 1\text{인당 순 납입금} (1\text{인당 평균 등록금} - 1\text{인당 평균 장학금}) = 914,770\text{원}$$

$$\circ 2014\text{년 현재 대학원생 수} : 석사 (15,826명) + 박사 (5,709명) \\ = 21,535\text{명}$$

- 1학기 등록금 수입 (총액) : 914,770원 × 21,535명 = 19,699,571,950원
- 1년 등록금 수입 (총액) : 39,399,143,900원

나. 4년제 대학 학부생 등록금 수입

1) 분석 방법

- 학부생 수 기입하지 않은 학교 제외
 - 지나치게 등록금 액수가 낮은 학교 제외
 - 한 학기 등록금이 아니라 1년 등록금을 기입한 학교는 1/2만 반영 (극동, 순천향, 영남, 한림)
- * 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입 총액과 학생 수를 제출했으나, 등록금 수입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1인당 등록금 액수가 평균 등록금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는 1/2만 반영

2) 분석 대상 학교

- 60개 대학
- 11,800명

3) 등록금 수입

- 등록금 총액 : 36,375,296,000원
 - 장학금 총액 : 9,556,548,000원
 - (장학금 지급률 : 26.3%)
-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전수 조사 결과 장학금 지급률 : 26.4%

$$\textcircled{O} \text{ 1인당 등록금} = 36,375,296,000\text{원}/11,800\text{명} = 3,083,000\text{원}$$

- 1인당 장학금 = 9,556,548,000원/11,800명 = 810,000원
- 1인당 순 납입금 : 3,083,000 - 810,000 = 2,273,000원
- 학부생 총원 : 30,539명 ('14년)
- 학부생 총 수입 (1학기) : 2,273,000원 × 30,539명 = 69,415,147,000원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의 전수 조사 결과 : 68,558,843,500원
- 오차 : 1.2%

- 학부생 총 수입 (1년) : 138,830,294,000원

4) 대학 유형별 등록금 수입

- 분석대상 학교 60개교의 분포
 - 수도권 대학 17개교, 지방 국립대 11개교, 지방 사립대 32개교
 - 응답한 수도권 국립대는 인천대 1개교뿐이므로, 수도권 대학은 국·사립 구분 없이 분석
- 수도권 대학과 지방사립대의 1인당 등록금은 각각 3,563,000원과 3,243,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등록금 부담률에 있어서는 79.6% 대 65.0%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 지방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부담률은 82.0%로 매우 높게 나타나나, 이는 등록금 자체가 상당히 낮은데 기인함
 - 지방 국립대의 실질 등록금은 1,444,000원이나 지방사립대는 2,102,000원으로 나타남

<표 V-7> 대학 유형별 등록금 수입

	수도권 대학 (17개교)	지방 국립대 (11개교)	지방 사립대 (32개교)
1인당 등록금(A)	3,563,000원	1,750,000원	3,243,000원
1인당 장학금(B)	725,000원	306,000원	1,141,000원
1인당 실질 등록금 (A-B)	2,838,000원	1,444,000원	2,102,000원
등록금 부담률	79.6%	82.0%	65.0%

다. 전문대 등록금 수입

1) 분석 대상 학교

- 22개 학교
- 647명

2) 등록금 수입

- 등록금 총액 : 1,711,095,000원
- 장학금 총액 : 472,954,000원
- (장학금 지급률 : 27.6%)

$$\circ 1\text{인당 등록금} : 1,711,095,000\text{원}/647\text{명} = 2,644,660\text{원}$$

$$\circ 1\text{인당 장학금} : 472,954,000\text{원}/647\text{명} = 730,995\text{원}$$

$$\circ 1\text{인당 순납입금} : 1,913,665\text{원}$$

$$\circ \text{총수입 (1학기)} : 1,913,665 \times 1,562\text{명} = 2,989,144,730\text{원}$$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전수 조사 결과 : 2,828,821,930원

- 오차 : 5.7%

○ 총수입 (1년) : 5,978,289,460원

라. 어학연수생 등록금 수입

1) 분석 방법

- 어학연수생 없는 학교 제외
- 어학연수생 수를 기입하지 않은 학교 제외
- 지나치게 액수가 작은 학교 제외

※ 평균 등록금 대비 약 2배 정도의 액수는 분기별이 아니라 학기별로
의심되어 1/2로 줄여 계산 (경상대, 광주여대, 조선대, 나사렛대, 순천
향대, 한국영상대; 장학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

2) 분석 대상 학교

- 60개 학교 (4년제 + 전문대)
- 6,635명

3) 등록금 수입

- 등록금 총액 : 9,113,750,000원
- 장학금 총액 : 468,892,000원
- (장학금 지급률 : 5.1%)

○ 순납입금 : 8,644,858,000원

○ 1인당 납입금 = 8,644,858,000원/6,635명 = 1,303,000원

- 총 등록금 수입(1분기) : 1,303,000원 × 18,543명 = 24,161,529,000원
- 총 등록금 수입 (1년, 4분기) : 96,646,116,000원

* 장학금 지급률의 비교

<표 V-8> 장학금 지급률의 비교

	대학원	4년제 대학	전문대	어학연수
장학금 지급률	73.2%	26.3%	27.6%	5.1%

- 대학원의 장학금 지급률(73.2%)은 매우 높으며,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장학금의 규모는 미미(5.1%)

바. 기숙사비

-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
 - 1) 각 대학이 제출한 한 학기 기숙사비를 기초로 계산
 - 2) 학생 대상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

- 1)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
 - 자료 없는 대학 제외
 - 지나치게 비싼 대학 제외 (예: 9,500,000원)

- 분석 대상
 - 95개교
 - 대학원생 : 2,168명

- 학부생 : 5,099명 (전문대생 포함)
- 어학연수생 : 2,659명
- 총 : 9,926명

○ 1인당 평균 기숙사비 : 749,100원

○ 유학생(응답자)들의 주거 형태

<표 V-9> 유학생(응답자)들의 주거 형태

	총원	기숙사 거주	기숙사 외 거주
대학원생	7,628 (100.0%)	2,161 (28.3%)	5,467 (71.7%)
학부생 (전문대 포함)	13,065 (100.0%)	4,971 (38.0%)	8,094 (62.0%)
어학연수생	7,517 (100.0%)	2,664 (35.4%)	4,853 (64.6%)

○ 대학원생의 경우 응답자의 28.3%, 학부생은 38.0%, 어학연수생은 35.4% 가 기숙사에 거주한다고 응답

- 이 비율을 전체 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전체 유학생 중 기숙사 거주 인원과 기숙사 외 거주 인원을 계산

○ 기숙사 거주 유학생 수

- '14년 대학원생 총수 : 21,535명
기숙사 거주 대학원생 수 : $21,535 \times 28.3\% = 6,094$ 명
- '14년 학부생 총수 : 32,101명 (4년제 30,539명 + 전문대 1,562명)
기숙사 거주 학부생 수 : $32,101 \times 38.0\% = 12,198$ 명
- '14년 어학연수생 총수 : 18,543명
기숙사 거주 어학연수생 : $18,543 \times 35.4\% = 6,564$ 명
- 총 기숙사 거주 인원 : 24,856명

○ 기숙사비 수입

- 1학기 기숙사비 총수입 : $749,100 \times 24,856 = 18,619,629,600$ 원
- 1년 기숙사비 총수입 : 37,239,259,200원

2) 서베이 결과에 기초한 추계

○ 1인당 평균 기숙사비 : 676,900원

- 1)에 의한 방법과의 차이 : 72,200원
- 오차 : 10.7%
- 10.7%의 차이는 기숙사비에 의한 보조일 가능성이 높음
-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는 한 학기 기숙사비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실제 지불하는 기숙사비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 (기숙사비에 대해 보조를 실시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

○ 기숙사비 수입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1학기 총기숙사비 수입 : $676,900 \times 24,856\text{명} = 16,825,026,400\text{원}$

※ 1) 방법과의 차액 : 1,794,603,200원

- 1년 총기숙사비 수입 : 33,650,052,800원

※ 서베이 결과는 학교 당국에 의한 기숙사비 보조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거비 계산에 있어서는 서베이 결과에 기초한 추계치를 사용함

3) 월세 수입

- 월세 지출은 서베이 결과에 기초하여 수집
- 전국 평균 : 316,000원
- '14년 기숙사 외 거주 학생 수 : 47,916명
(소수의 학생들이 전세 거주를 하고 있으나 이자율 등을 계산하면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
- 한 학기 월세 수입 : 15,141,456,000원
- 1년 월세 수입 : 30,282,912,000원

4) 1년 주거비 총액

- 1년 총거주비 = 기숙사 수입 + 월세 수입
= 32,847,249,400원 + 30,282,912,000원 = 63,130,191,400원

* 참고 : 전체 유학생들의 주거 형태(추정)

<표 V-10> 전체 유학생들의 주거 형태 (추정)

	총원	기숙사 거주	기숙사 외 거주
대학원생	21,535 (100.0%)	6,094 (28.3%)	15,441 (71.7%)
학부생	30,539 (100.0%)	11,605 (38.0%)	18,934 (62.0%)
전문대학생	1,562 (100.0%)	594 (38.0%)	968 (62.0%)
어학연수생	18,543 (100.0%)	6,564 (35.4%)	11,979 (64.6%)

사. 생활비

- 식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잡비는 서베이에 기초하여 계산
- 1년은 8개월로 계산

<표 V-10> 유학생(응답자)들의 식비

	월 평균 식비	유학생 수	월 식비 총액	1년 식비 총액
대학원생	303,000원	21,535	6,525,105,000	52,200,840,000
학부생	357,900	32,101	11,488,947,900	91,911,583,200
어학연수생	268,800	18,543	4,984,358,400	39,874,867,200
총 수입				183,987,290,400

<표 V-11> 유학생(응답자)들의 교통비

	월 평균 교통비	유학생 수	월 교통비 총액	1년 교통비 총액
대학원생	68,500	21,535	1,475,147,500	11,801,180,000
학부생	70,700	32,101	2,269,540,700	18,156,325,600
어학연수생	53,100	18,543	984,633,300	7,877,066,400
총 수입				37,834,572,000

<표 V-12> 유학생(응답자)들의 기타 잡비

	월 평균 잡비	유학생 수	월 잡비 총액	1년 잡비 총액
대학원생	198,400	21,535	4,272,544,000	34,188,352,000
학부생	213,700	32,101	6,859,983,700	54,879,869,600
어학연수생	145,600	18,543	2,699,860,800	21,598,886,400
총 수입				110,667,108,000

아. 유학생 유치시의 경제적 효과 (총수입)

<표 V-13> 유학생 유치시의 경제적 효과

(단위 : 천원, 1년)

	대학원생	학부생	전문대생	어학연수생	합계
등록금 수입(A)	39,399,144	138,830,294	5,978,289	96,646,116	280,853,843
주거비 수입(B)	18,008,769	27,677,137	1,415,933	16,457,071	63,558,910
기숙사비 수입	8,250,057	15,710,849	804,157	8,886,343	33,651,406
월세 수입	9,758,712	11,966,288	611,776	7,570,728	29,907,504
생활비 수입(C)	110,232,744	172,887,386	8,842,794	76,174,643	368,137,567
식비	52,200,840	87,439,265	4,472,318	39,874,867	183,987,290
교통비	11,801,180	17,272,858	883,467	7,877,066	37,834,572
통신비	12,042,372	15,965,789	816,614	6,823,824	35,624,599
기타 잡비	34,188,352	52,209,474	2,670,395	21,598,886	110,667,108
합계 (A+B+C)	167,640,657	339,394,817	16,237,016	189,277,830	712,550,320

○ 대학원생, 학부생, 전문대생, 어학연수생을 모두 합할 경우

- 등록금 수입 : 280,853,843천원
- 주거비 수입 : 63,558,910천원
- 생활비 수입 : 368,137,567천원으로
- 총 712,550,320천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 기타 연수생을 통합 수입

- 7,125억 원의 수입은 기타 연수생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기타연수생은 교환학생, 복수학위 과정 참여 학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범주로서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지는 않으나 주거비와 생활비는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

- 학부생의 경우 1인당 평균 주거비 960,284원과 생활비 5,661,200원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기타연수생 1인당 연 6,621,48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 (다음 8번 참조)
- 2014년 현재 기타 연수생이 12,712명이므로
- 기타 연수생을 통한 총수입 = $6,621,484 \times 12,712 = 84,172,304,608$ 원

○ 유학생 유치를 통한 총수입

- 그러므로 유학생 유치를 통한 연간 총수입은 796,722,625천원임

자. 유학생 1명 유치 시의 경제적 기대 효과 (1년 단위)

<표 V-14> 유학생 1명 유치 시의 경제적 기대 효과

	대학원생	학부생	전문대생	어학연수생
등록금 (A)	1,829,540	4,546,000	3,828,000	5,212,000
주거비 (B)	836,269	906,284	906,284	887,517
기숙사비	1,353,800	1,353,800	1,353,800	1,353,800
월세	632,000	632,000	632,000	632,000
생활비 (C)	4,920,000	5,661,200	5,672,200	4,108,000
식비	2,424,000	2,863,200	2,863,200	2,150,400
교통비	548,000	565,600	565,600	424,800
통신비	559,200	522,800	522,800	368,000
기타 잡비	1,388,800	1,709,600	1,709,600	1,164,800
평균 수입	6,671,039	8,840,484	8,492,484	6,298,517

주: 유학생이 8개월 한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

- 대학원생 1인 유치할 경우 1년 간 기대 수입 : 6,671,039원
 - 학부생 1인 유치할 경우 1년 간 기대 수입 : 8,840,484원
 - 전문대생 1인 유치할 경우 1년 간 기대 수입 : 8,492,484원
 - 어학연수생 1인 유치할 경우 1년 간 기대 수입 : 6,298,517원
-
- 어학연수생은 등록금 수입은 많으나 생활비 지출이 다른 과정 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
 - 대학원생은 장학금 지급률(73.2%)이 높기 때문에 기대 수입은 학부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유학생 1명을 유치할 경우 평균 기대 수입 : 7,575,631명

VI.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방안

: 비자정책

1. 고등교육 국제화와 한국의 국제화 정책

가.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과 필요성

- 21세기 이후 고등교육의 국제화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모두에서 유학생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 아시아지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개방으로 인한 유학생의 공급적 측면이 두드러짐. 한국과 일본의 경우 유학생의 공급 뿐 아니라,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집행 중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위시한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한국 유학시장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 그리고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유학생의 유치 및 교육은 교육정책 뿐 아니라 산업, 노동, 인구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의 미래 청사진 구성에 중요한 정책투입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고등교육 및 유학생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학, 구직, 취직 비자 등 각종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전제하고 있음. 성공적인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정책을 위해서는 유학생 유치 및 졸업 이 후까지 연계되는 통합적인 관리제도가 필수적임

나.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의 문제점

1) 관련부서 간 협력체계의 비효율성

- 교육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과, 고용노동부, 법무부의 통제 위주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간의 부조화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고용허가와 비자교부가 구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산업과 고용, 그리고 유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어렵게 하는 원인임. 특히 유학생의 유치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노동시장의 균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달성되기 어려움
- 호주의 경우 “Educating Globally”의 연구를 통해 Minister for Tertiary Education, Skills, Science and Research(MCCIE)의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통합부처를 통해 대학교육과 기술, 과학과 연구, 그리고 유학부문과의 통합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2013)

2) 고등교육 국제화정책 및 유학생 확대 정책의 체계성

- 일반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는 경제적, 학문적, 정치적, 문화적 이유 등 4 가지 근거(rationale)를 가지며, 각 국가는 이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하연섭(2012)에 의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은 위의 4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표 VI-1> 고등교육 국제화의 근거와 근거별 유형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경제적 이유	+++	+++	+	++	+++
학문적 이유	+	+	++	+	+
정치적 이유	+++	++	+++	+++	+
문화적 이유	+	+	+	+	+

-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경제적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호주와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산업이 호주 전체 산업 중 3번째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중요성이 지대함
- 이와 반대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전반적인 국가역량의 증진 차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강함. 또한 두 국가의 고등교육 국제화는 국내산업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됨
- 한국의 경우, 위와 같은 네 가지 국제화의 근거를 모두 포괄하지만, 정책의 구체화 수준에서 이 네 가지 근거간의 조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한국의 유학생 정책, 혹은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문제는 대학 내부적 국제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현재 대학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은 높지 않으며, 유학생 유치가 국내학생의 공급 축소의 대안으로만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즉, 교육과 전공 및 역량개발, 전공과 산업과의 연계, 교육과 취업과의 일관성 유지 등 다양한 고등교육 국제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대학들의 역량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

2. 해외 주요국들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관련 정책

가. 해외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 비교

-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8개국의 고등 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관련정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음

<표 VI-2> 해외 각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의 목적 및 내용

국가	주요 정책	목적	내용
영국	(1) 국제교육을 위한 수상 제언 PMI2, The Prime Minister's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2006)	전략국가에 대한 유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K-India Education and Research Initiative (UKIERI) - BRIDGE, British Degrees in Russia를 통해 러시아 대학과 복수학위 제도 도입 - 영국교육을 국가 브랜드화하고 해외에 영국대학들을 홍보 - 외국인 유학생의 질을 제고하고 모범사례를 공유 - 학업을 종료한 외국학생들의 구직을 지원
	(2) UK Council for International Student Affairs	외국유학생들을 돋기 위한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고등교육기관에 이민정책, 재정계획, 문화적 적응 등에 관한 안내 담당
	(3) 유학생 고용 및 이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유학생들이 주당 20시간, 방학기간 동안에는 주당 40시간 일할 수 있음.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국가보다 많은 시간) - 학위 취득 후 2년간 체류 허용 (독일은 1년 체류 허용)
독일	(1) 학제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대학의 국제화 -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유럽으로 적극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블로냐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 HRG)을 개정하여 4-5년이 소요되는 1단계 과정으로 구성된 독일의 전통학제인 디플롬(Diplom)과정을 보편적 학제인 2단계 학제인 3년의 학사(Bachelor)과정과 2년의 석사(Master)과정으로 바꿈
	(2) '대학입지 독일 (Hochschulstandort Deutschland)'	독일대학에 대한 국제적 마케팅	DAAD(독일학술교류처)와 대학총장회의(HRK, 268개의 대학연합체)는 “게이트-독일(GATE-Germany)” 설립
		A. 연방정부 사업 게이트-독일 GATE-Germ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대학의 국제 마케팅을 위한 최대 규모의 서비스 제공자 - 140개 독일대학이 회원, 독일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0%가 이들 대학에 등록되어 있음 - 국제 대학시장에서 독일대학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목적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확보케 함 - 전 세계 최고두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독일대학이 가진 잠재력을 제시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대학이 고유의 실행전략을 벤치마킹 과정에 반영하고 미래 마케팅전략을 발전시키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학문입지 독일의 국제경쟁력과 매력을 유지케 함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철학의 나라 독일에서의 유학(Study in Germany-Land der Ideen) 이미지캠페인' ② 대학마케팅 시리즈 발간: 중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의 교육시장과 해외유학생들의 유학동기와 희망 및 독일대학의 마케팅 및 해외유학생 유치방법 등을 분석 ③ 국제유학생바로미터(International Student Barometer, ISB) 수행: 유학생과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들의 기대, 결정, 정보행태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 연구 ④ 대학마케팅 관련 노하우 전수: 세계대학박람회에서 독일대학 지원,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서비스 제공,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B. 주정부 정책: 주마다 다른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가 해외유학생을 유치하려는 주요 목적: 전문인력의 확보, 해당 주의 대학 경쟁력 상승 - 웹사이트 Studienwahl.de 운영: 연방노동청과 공동으로 해외유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C. 대학차원	DAAD와 소속 주정부의 대학발전계획 틀 내에서 국제화전략 발전 추진
(3) 유학 환경 개선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유학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 - 학업 중인 유학생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아르바이트 허용(과거 외국인 유학생은 방학 중에만 허용 → 현재 연 전일제 120일, 반일제 240일 아르바이트 허용, 체류법 제16조 3항) - 학위 취득 후 구직활동 기간 부여: 18개월 간(체류법 제16조 4항) - DAAD(독일학술교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무부의 재정 지원 하에 '장학금·상담프로그램'을 대학에 제공 ② '외국인학생 통합촉진프로그램' 운영: 유학생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p>독일과 지속적인 유대를 갖도록 하여 이를 고급인력을 국제경쟁에서 중요하게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독일대학 학업을 위한 국가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9년11월 대학총장회의 총회 결정 ② 해외유학생들에게 독일학생 및 유럽연합학생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외국인으로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 ③ 독일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정보와 광고, 허가, 관리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외국 유학생들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공동기준을 설정
(4) 주요 기관 DAAD,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독일학술교류처	<p>지식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학생과 학자들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일 대학의 국제 활동 조력: 외국인 차세대엘리트가 독일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가능한 한 독일의 평생 파트너로 유지하는 것 ② 국제 마케팅: 독일 대학의 국제 성과 매력을 촉진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AD 연간예산은 2012년 약400백만 유로 (연방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지원, 외무부 44%, 연방교육연구부 24%, 연방경제협력개발부 9%) - 연간 60,000명에게 장학금 지급 -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독일학생의 외국으로의 이동 촉진,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진행 - 위의 국제화를 위해 DAAD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마케팅, 정보제공, 학생모집, 외국학생을 위한 경력지도, 모금, 프로그램 설계, 질 관리, 동창회 관리, 국제 특강 등의 활동을 수행 - 목표국을 설정하여 독일의 고등교육을 홍보하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정책을 전개 - 국제마케팅사업 예) ①철학의 나라 독일에서의 유학, ②철학의 나라 독일에서의 연구, ③독일박사, ④케이트-독일 	
(5) 기타 재단의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FG, German Research Foundation - AvH, Alexander von Humboldt-Foundation 흄볼트재단 	
프랑스	(1) CampusFrance(2007)	<p>프랑스 고등교육을 대외에 홍보하고 외국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1998년 설립한 EduFrance를 확대·개편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학생 유치활동을 벌이며, 프랑스 유학의 초기단계부터 모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학생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회원학교의 수는 242개교로 거의 모든 대학이 참여 	

	정부산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89개국에 116개 해외 사무소와 부설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이들은 프랑스 대사관의 지시를 받음 - 사무소는 프랑스 유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담당 - 27개의 언어로 구성된 5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구축 운영 - 약 600여개에 달하는 장학금 기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 매년 영어강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탈로그, 프랑스에서의 유학생 활동에 대한 일 반적인 가이드, 유학생 활동 뉴스레터 등을 발행
(2) 성과지표/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각종 정책의 집행과 더불어 자국의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 성과지표와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침의 준수를 결정하도록 함 	<p>지침 항목</p> <p>(정보공시, 입학, 비자발급, 교육의 질, 유학생 도착시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숙박, 유학생 귀국시점에서의 서비스제공)</p>
(3) 외무부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가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 운영방식과 운영목표가 각기 다름 ① 프랑스 정부 장학금 - 각국의 프랑스 대사관 예산으로 집행, 상대국 정부와 공동의 관심분야에 지원 ② 에펠후원 우수 장학 프로그램 - 과학 및 공학, 경제-경영학, 법학 및 정치학 분야에 한정. 신흥국가 대상 ③ 우수 학생 장학금 - 해외 프랑스 교육기관 출신의 외국인 학생에 수여되는 장학금 ④ 장학금 지급을 다른 기관들과 공동 지원하는 형태의 장학 프로그램 - 민간분야 또는 공공분야 파트너와 장학금 지급 공동지원
(4) 유학 환경 개선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대학에서 수학하는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체류증 발급업무 개혁: 유학생의 학업기간에 맞추어 학업비자의 기간에 편의 제공, 학위 취득 후 비자 1년 연장 - 외국인 박사과정생들에 영주비자(visa permanent)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 캠퍼스에 체류증 업무 및 사회보장 업무 담당하는 원스톱 서비스 사무소 설치
미국	풀브라이트(Fulbright)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장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대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장학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155여개 국가에서 운영 -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지원, 매년 8,000명의 수혜자 중 외국인유학생이 절반가량
	EducationU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표적인 유학생 유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의 교육문화국 산하기관, 공식 미국 유학 안내센터 - 169개국에 400개가 넘은 사무소를 갖고 있음 - 미국 유학에 관해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최신정보 제공
캐나다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유학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연구와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 캐나다 정부 장학금(Government of Canada Awards, GCA)은 캐나다 외교통상 개발부로부터 자금 지원, 매년 사용 가능한 장학금의 수를 결정 - 캐나다 국제교육국은 재정 및 행정관련 문제 담당 -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으나, 학부생 과정의 유학생이 아닌 대부분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
	캐나다 교육위원회 (CM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정부 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부처는 없으나, 캐나다 교육위원회가 유학생 유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최근 외교통상개발부는 국제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유학생 교류와 장학금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을 캐나다 교육위원회, 다른 연방 정부 부처, 그리고 비정부 조직들과 같이 협력하여 추진 - 이민국은 학생비자, 국제개발원은 장학금 제공
호주	(1)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제도화-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OS Act와 관련된 법안들은 호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법' ESOS, The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원서비스의 표준, 소비자 보호, 교육공급자의 의무, 등록금에 대한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호주의 국제적 명성과 외국학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

	Services for Overseas Students Act(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의 초점: 질 높은 교육, 수업료 보장, 윤리적인 유치, 학생복지, 불만처리 및 비자 프로그램에서의 성실성 등 호주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 - ESOS Act의 주요내용은 CRICOS에 국제학생 교육기관의 등록, National Code 목적의 정의, 학생비자 요건 위반시 교육제공기관의 보고의무, 기록, 에이전트, 소비자보호규정, 등록금 납부 및 환급, 모니터링과 집행권한 등을 포함
	②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및 등록 기관을 위한 행동지침 National Code of Practice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ode는 등록금 교육제공기관의 운영과 과정의 등록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 15개의 기준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등록과정의 공식화, 에이전트와의 관계, 18세 이하 학생에 대한 복지규정, 불만 및 청원과정, 학생의 이전, 과정에서의 성취와 출석점검 등을 포함.
	③ 개정 ESOS Act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 호주 교육산업의 개혁 뿐 아니라 호주 교육산업의 소비자로서 해외 유학생의 권리 보장, 양질의 정보 제공,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위험에 처한 유학생의 거처 지원 보장 등을 강조
(2) 유학생 전략 기구 MCTEE	해외유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해 호주 국제교육의 미래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복지, 교육의 질, 수요자(유학생) 보호, 정보 제공 (Study in Australia 포털 강화 등) 등의 4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전략 제시 - MCTEE (the Ministerial Council on Tertiary Education and Employment)가 중심이 되어 운영 - 다른 연방정부 각 부처, 주와 자치 정부 등이 연계하여 운영
(3) 유학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입학)지원 ① 비자 및 보험: 국가, 지원 조건 등 유학생 특성에 따라 평가 등급제 적용 운용 ② 입학 전 어학 교육 운영 - 학업지원 정책 ① 영어 교육 ESL 지원 ②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록제도 운영(CRICOS라는 DB등록부 통해 정부차원에서 교육 질 관리) - 생활지원 정책 ① 장학금 사업 ② 학업 중 인턴 및 취업 장려(학기 중 일주에 20시간까지 근무 가능) ③ 외국인유학생 등록금 보증기금 운영 (폐교될 경우 등록금 환불을 위한 보증기금) ④ 기숙사 확보 사업
(4) 졸업 후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과 기술직을 위한 이민프로그램(Professionals and Skilled Mig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반 이상이 호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5) 유학생 추진 기구	① DEEWR 산하 AEI 호주교육인터넷내셔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외국인 유학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책임부처는 호주 연방정부의 교육고용부(DEEWR), 이 산하에 국제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AEI,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이 있어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추진 - 정책개발과 상담, 호주교육의 국제적 대변자로의 역할 수행, 국제교육의 질관리와 소비자보호, 교육인증, 유학시장 분석과 지원,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학생교류의 활성화, 유학생 관리 및 유학생 장학제도 등 운영 - 조직적으로 ①ISB 국제전략본부(유학생 관련 동향 연구분석, 테이터 수집, 정책개발, Study in Australia 브랜드 관리 등)와 ② IQB 국제품질본부(외국인 유학생 보호법인 ESOS의 실행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품질관리)
	② Austrade 호주무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법 개정 이후, 호주유학 및 국제 교육에 관한 홍보, 마케팅 사무, 유학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Studyinaustralia.gov.au 웹사이트의 관리사무, 마케팅정책부페키지(MIP, Marketing Information Package)의 간행업무 등이 AEI 호주교육인터넷내셔널에서 Austrade로 이관됨
	③ I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생모집 및 배치, 공인영어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호주의 39개 대학 중 38개 대학과 온라인 채용회사인 SEEK Ltd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한 민간업체 - IDP의 기능은 ①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② 공인영어시험 주관, ③ ADB, World Bank, AusAID 등 기구와 협력 하에 진행하는 국제 교육원조 프로그램의 관리
(6) 유학생 정보 운영체계	① CRIC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개를 상회하는 호주의 국제교육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 외국학생을 유치하고 교육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CRICOS에 등록해야함 - CRICOS에서 규정한 교육제공자는 학교, 직업교육, 고등교육, ELICOS, 예비과정 등 모든 과정을 포함
	② PRIS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ICOS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이 PRISMS - 학생에 대한 세부정보와 고등교육공급자에 관련된 과정 데이터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SMS은 이민관리시스템과 상호정보교환, ESOS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비자 관련 데이터를 보고 - CRICOS에 등록된 모든 교육기관은 PRISMS에 등록, 이 PRISMS은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바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됨
뉴질랜드	유학생특별관리 업무규정 Code of Practice for the Pastoral Care of International Stu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유학생 특별관리 업무사항 등을 규정 - 일반사항 - 유학생에 대한 마케팅, 모집 및 입학 - 계약된 대행업체(에이전트) - 계약 및 손해배상 - 복지 - 숙박시설 - 불만(사항) 처리 절차 - 신청 및 모니터링 - 관리
	Education New Zealand Trust	유학생 유치, 관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교육기관에 대한 홍보는 2003년부터 도입 - 모든 교육기관에 부과되는 Export Education Levy를 통해 재원 조달 - 위의 Levy는 외국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수입의 0.45%로 설정
일본	(1) 유학생 유치 기구 JASS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일본학생지원기구	- 국가장학금 사업과 유학생 지원 서비스 사업 관장 하면서 국제화 의 첨병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법에 의거하여 2004년 설립된 문부과학성 산하의 독립행정기구 -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일본정부의 사업은 JASSO에 위임되어 추진 - 주요사업 ①장학금 지급 사업 (문부과학성의 장학금 사업), ② 일본어 교육센터 의 운영, ③기술사 및 생활 지원
	(2)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인재의 획득이라고 하는 국 익을 전제로 한 국가전략으로서 의 유학생 정책 - 일본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 등의 교육 및 연구분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추진 전략 <p>① 일본유학의 동기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유학정보 발신 - 유학 상담의 강화 -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의 충실회 <p>② 일본 진입절차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정보 발신력 강화

	<p>국제경쟁력을 높여 2020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내 관계 기관 등과의 총합 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계획을 추진(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심사의 간소화 - 방일 이전의 입학허가 추진 - 각종 절차를 방일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절차 간소화의 보완책으로 대학의 재적관리강화 <p>③ 대학의 국제화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거점대학 육성(글로벌30) - 영어 수업 코스의 확대 - 공동 학위제, 단기유학제도 등의 추진 - 대학 내에 국제화 추진을 위한 조직의 설치 <p>④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유학생(1년 이내)에게 기숙사 제공 - 기준의 국비유학생 제도 개선 - 지역, 기업 등과의 교류 지원 - 국내의 일본어교육 환경 개선 - 유학생에 대한 생활 지원책 강화 <p>⑤ 유학생 고용의 촉진(일본사회의 글로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학, 정부가 연계하여 유학생의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재검토 - 귀국 유학생과의 지속적인 연계망 구축 및 충실회
(3) 국제화거점정비사업 (글로벌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화거점대학 30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2008년에 수립된 “유학생30만명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한 대학은 입학과정의 개선, 학생모집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가을학기 입학허용, 영어전용강의 확대, 외국인 전임교수 증원을 수행 - 선정된 기관은 향후 5년간 3,000명에서 8,000명의 외국유학생을 총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대상이 됨

	Finnish Education Export by FINPRO(수출진흥공사) 핀란드 교육 수출 전략 보고서(2010)	교육 분야에서 핀란드의 강점을 활용하여 교육 노하우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서비스 관련 수요를 집중 육성-교사, 건축(학교 건물 등), 수업계획, 교재, 강의방법 등 교육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수요 급증 - 2008년 초 학위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의 판매를 인정하는 법 통과 - 2009년 중국 상하이에 강사 파견(중부 오스트로보스니아 응용과학 대학의 간 화학과 프로그램을 상하이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 2009년 두바이 아부다비 교육위원회의 10개년 교육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 학교 건립에 참여(핀란드 교육과정, 교육학 방법 등을 전수. UAE 교수와 학교 리더십 발전에 목표를 둠) -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건립 프로젝트 진행 → Future Learning Finland 국가적 교육 수출 프로그램으로 현재 70명의 전문가로 구성
핀란드	(2) Future Learning Finland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교육 수출 프로그램 - 핀란드 수출진흥기관(FINPRO)과 세 개의 정부 기관(교육문화부, 고용경제부, 외무부)이 협력하여 진두지휘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훈련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핀란드 직업 교육과 기관과 사기업을 매칭하여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 중점 교육 프로그램 사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를 수여하는 국공립 사립 교육 Public and private degree-based education ## 직업 교사 훈련 Vocational teacher training ## 학문으로서의 교육 Research-based education ## 학습 환경(건축 시설 등) Learning environments (physical and virtual) ## 정보통신기술 학습 ICT in learning ## 능력위주의 직업 교육 Competence-based vocational training

<표 VI-3> 핀란드 교육 수출 전략

▶ 핀란드 교육수출의 목표: 핀란드 교육제도의 강점을 활용, 교육노하우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

1. 국내 시장에서 교육의 성공이 수출의 전제조건
2. 교육 노하우(know-how) 수출이 타 수출 산업에도 기여
3. 네트워킹이 부가가치를 가져옴
4. 국제화에 있어 목표 지향(goal-orientation)이 중요한 요소
5. 국제시장에서 생산력이 전제조건
6. 성공의 열쇠는 교육의 질
7. 협동이 수출 속도 가속화
8.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수출에 원동력

▶ 핀란드 교육의 강점

-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 OECD PISA의 우수한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 증가
- 국제 프로젝트에서 핀란드의 교육행정, 교육기관의 평판이 좋으며 오랫동안 국제화를 준비
- 교육연구 및 평가의 질이 높음
- 교육행정기관의 유연성이 긴밀한 협력관계에 유리

▶ 핀란드 교육의 성공가능성

- 교육시장의 확대 및 세계화 추세, 국가들의 교육시장에 대한 투자
-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국제학생들에 최상의 교육환경 제공
- 혁신적인 시스템, 교사 교육, 교육적 지식 등
- 관련기관 협력 등이 원활하여 상품화 적절

▶ 핀란드 교육수출의 배경

- 1990년대 노키아의 성장 이후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던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핀란드 교육부로 밀려오는 교육서비스 관련 수요를 집중 육성해 21세기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함
-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와 국영기업 임직원 30만 명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 핀란드 정부는 인력이나 조직 등의 문제로 이 요청을 거절
- 2008년 핀란드 정부는 학위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의 판매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2009년 상하이에 강사들을 파견함. 이는 핀란드에 위치한 중부오스트로보스니아 응용과학 대학의 간호학과 프로그램을 상하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2009년 교육부장관 Henna Virkkunen은 교육수출을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하였으며, 핀란드의 know-how의 적극적 수출전략을 세울 것을 요청.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2010년 1/4분기 ①300~500만 유로 정도의 조기 예산 투입 ②교육관련 기관들의 수출마인드 육성 촉구 등을 요청

▶ 핀란드 교육수출의 정의

- 영미권 국가들의 고등교육 산업과 달리, 핀란드의 교육수출은 교육부분 컨설팅 및 학습과정의 효율화 관리 등의 know-how를 포함하는 개념임(Education Export의 개념보다, Export of Education Expertise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이는 수출을 통한 ‘이익’을 중요한 목적으로 함)
- 워킹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수출은 반드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부문 혁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탄력적인 정책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
- 또한, 교육수출은 일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타 국가의 공무원 및 공공분야 종사자, 비영리부문 종사자, 그리고 일반 사기업의 직원까지 잠재적은 서비스 수요자로 상정함

▶ 핀란드 교육수출의 주요 대상

교육수출‘비즈니스’의 주요 타겟은 다음과 같음

1. 전 세계의 각급 학교
2. 외국의 공사부분과의 전략적 제휴, 전문컨설팅, 솔루션제공 등
3. 핀란드 교육시스템의 지역 접목
4. 학위사업(Degree Business)
5. 가상교육을 통한 공공부문 종사자 교육
6. 학습게임(Learning Games)
7. 가상교육을 위한 인프라 및 환경구축
8. 학습을 위한 각종 교재 및 상품
9. 국제기구의 기금지원을 전제로 한 교육개혁사업 참여
10. 새로운 교육자재 등 교육내용 개발 사업

▶ 핀란드 교육수출의 현황

- 현재 핀란드 교육수출은 비즈니스 업계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학위제공보다는 교육 컨설팅 및 교육환경 혁신 등의 내용이 우세함
- 현재 뚜렷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많지 않으며, 여전히 교육수출 사업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출처: 핀란드 교육 수출 전략 : 전략적 노선과 정책에 대한 요약

나.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관련 정책 변화

-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표에서 소개한 8개국 모두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정책의 집행은 각 국가별 특징과 고등교육 정책의 맥락에 따라 구별될 수 있음
- 이전 국제화 경향에 미온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 역시 2000년대 이후 매우 적극적으로 대학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유인수단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① 국가 주도적인 정책수립과 높은 제도화 수준
 - ② 정책의 전 과정에 고등교육 서비스 제공자인 대학들의 직접적인 참여 보장
 - ③ 대학별 장단점 및 특성에 기반한 유형화 및 블록화
 - ④ 유학생들의 학위과정 중 및 학위취득 이후 취업기회 확대
 - ⑤ DAAD(독일학술교류처), Campus France, IDP(호주), JASSO(일본) 등 전문성 높은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
 - ⑥ 고등교육-산업-노동-이민 등 사회 전 분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다.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의 산업정책적 중요성

- 고등교육 국제화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가 경제 내에서 고등교육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차원 뿐 아니라, 국내 산업구조 및 인력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표 VI-4> 외국 인력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2000	2007	2009
오스트리아	10.6	13.1	13.6
프랑스	6.0	5.4	5.8
독일	8.8	9.4	9.4
이탈리아	3.9	6.6	8.6
일본	0.2	0.3	-
한국	0.6	2.1	2.3

주: 외국 인력의 측정은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 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OECD(201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 위의 표는 비록 ‘유학생’의 졸업 후 산업계 진출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각 국가들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고,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은 노동력의 질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 정책은 단순히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에 신입생을 공급하는데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시스템과 산업, 노동시장, 그리고 대학 생태계간의 긴밀한 상생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3.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 관련 주요 이슈

- 위에서 제시된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 대응노력은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 관련 매우 중요한 환경 변화를 의미함
- 한국의 경우도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양적, 질적 수준은 아직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미흡한 수준
- 유학 모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유학생 유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적인 고등교육 국제화의 추세와 한국의 정책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주요 개선 방향은 ① 관련 정책부문 및 정책주체 간 연계성 확보, ② 유학생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인 커리어를 지원할 수 있는 비자제도 마련, ③ 유학생 가족관련 제도 개편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음

가. 유학생 정책과 산업 및 노동 부문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탐색

-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 산업, 노동정책,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관련 정책 분절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해외의 속련, 비속련

노동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친숙하고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에의 정착은 다양한 정책문제의 대응방안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유학생들의 학위취득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 내 유학생은 졸업 후 D-10 비자로 간접을 통해 최대 2년간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
- 취업 시 전공연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전공-직업의 연계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보충성’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단기간에 전공연계의 방침을 폐지하기는 쉽지 않음
-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및 취업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경우는, 각 국가가 ‘유학’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 관점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리고 그 국가의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상이함
- 본 연구의 비교대상 8개 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중 학업을 마친 학생들이 구직비자(Post Study Work Visa) 취득의 기회를 주는 국가는 영국(2012년 폐지)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임. 그 기간은 12개월(뉴질랜드)부터 3년(캐나다)임
- 하지만, 그 내용과 조건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미국(OPT visa)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구직비자로 체류하는 기간 중에는 전공과 상관없는 일자리에서 일

을 할 수 있음

- 구직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즉시 취업비자로 간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전공과의 연계성 여부가 중요함

나. 유학생의 정주와 안정적 커리어 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산업적 측면에서 향후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역량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사회에의 정착은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학위과정생)들은 학업기간 내 취업, 졸업 후 구직 비자 취득, 졸업 후 취업 등이 모두 가능하며, 이는 본 연구의 비교대상 8개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내 외국 유학생들의 구직 및 취업 관련 기회 자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들의 민원사례는 현장에서의 엄격한 원칙적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경우 구직(D-10) 및 취업비자 부여 시 한국 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공연계성을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외국인 취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역시 우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임

- 구직비자(D-10)의 경우, 현재 유효기간 6개월 비자의 갱신을 통해 최장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외국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간이 짧다고 할 수는 없음(학사학위자는 1년, 석, 박사 학위자는 2년까지 연장 가능). 하지만, 6개월 주기의 갱신조건은 유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유학생 졸업자들의 지속적인 구직노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따라서, 구직비자의 제도개선은 유학생들의 필요와 불편해소, 유학생들의 경험의 활용가능성 제고,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가능성 최소화 등의 기준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음
- 외국 국적의 유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취업기회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의 조합임. ① 현행 한국의 제도 하의 학위과정 중 근로기준, ② 호주의 졸업 후 구직비자(Post-Study Work, 졸업 후 학위별 2~4년), ③ 캐나다의 전공-직업 무연계 제도
- 하지만, 호주나 캐나다 등과는 달리 현재 한국은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지 않고, 문화적으로 이민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청년층 실업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비자제도의 개편은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해외사례와의 비교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구직비자 기간의 연장보다는 갱신헛수를 최소화함으로서 유학생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유학생 가족비자 제도 개선

- 유학생 가족(Dependent)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뜻함
- 유학생 가족의 취업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권 국가와 일본의 경우는 가족의 노동이 허가되며, 독일과 프랑스, 미국은 유학생 가족의 노동을 허가하지 않음
- 영국과 호주의 경우 배우자의 단기 취업에 대해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음. 이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 배우자들의 취업이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 노동 및 취업을 불허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들의 취업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영국과 같이 유학생의 유학 기간 내 배우자들의 노동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표 VI-5> 일반대학과정 유학을 위해 비자 제도 비교

국가	비자 비용 (USD)	학업연한 규정	복수 입국	취업 가능여부	졸업 후 구직 비자	졸업 후 취업 시 전공연계 여부	유학생 가족비자	유학생가족 취업
한국	50 (단수)	Y (1회 부여 제한기간 상한 2년)	Y	Y (시간제 취업 가능, 단순노무 등, 학부 및 어학연수 과정생은 주당 20시간 이내, 인증대학 유학생은 주당 25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생은 주당 30시간 이내)	Y (D-2에서 D-10으로 전환가능 유학생들에게 D-10은 유효기간 6개월 비자로 발급,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음(전문대 및 학사졸업자는 1년, 석·박사 학위취득자는 2년) 최근 3년 이내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국내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평균학점이 3.0이상이어야 함)	Y (취업비자의 전공연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원칙적용의 완화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에게는 이 원칙을 더 많이 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Y (F-3 비자 취득)	Y (방송, 영화, 모델 활동에 일회성 또는 일시 단역 출연, 학원 등에서 회화강사 또는 외국어학교 교사,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외국어 교열원)
	80 (복수)							
영국	466	Y (12개월 이상 되는 교육프로 그램의 경우, 5개월 추가)	Y	Y (영국 고등교육기관 UK HEI이나 영국에 있는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단기 프로그램 교육학생이라면 주당 20시간/방학이나	N (2012년 Post-Study Visa 제도 폐지 이전 제도에 의하면, 학부, 석사, 박사과정 졸업생은 졸업 후 2년간 구직비자로 영국 내에 머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음. 현재는 졸업 후 tier 1 (graduate Entrepreneur) 또는 tier 2(취업비자)를 영국 내에서	N (①Tier 1 졸업생사업가 비자 Graduate Entrepreneur ②Tier 2 일반비자 General Visa 최소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취업 시 전공 연계 여부는 필요 없음)	Y (정부장 학생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Y (정규직, 파트타임직, 자영업 등 다 가능. 단 12개월 미만 교육과정의 학생비자 보유 재학생이고, 대학교 학위

		체류비자 발급)		휴일동안은 정규직도 가능. 정부지원 평생교육원 재학생의 경우는 주당 10시간/방학 동안은 정규직 가능. 직업연수 허용되나 이것이 취직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신청할 수 있음)		유학생의 경우)	아래의 교육과정 재학생의 배우자나 아이의 경우는 취업할 수 없음)
독일	74 (협약된 나라마다 다름)	Y	입국 후 복수 입국 비자를 체류 허가로 변경	Y (비 EU회원국 학생은 평년 90일까지 허용)	Y (체류법 제16조에 따라 비EU회원국 출신, 졸업 후 18개월 간 구직활동 허용, 이 체류기간동안 어떤 형태의 취업도 다 허용 ② 취업비자로 갱신 시 대학전공학위에 적합한 일자리에 한해 work permit으로 허용)	Y/N (①체류법 제16조에 따라 비EU회원국 출신, 졸업 후 18개월 간 구직활동 허용, 이 체류기간동안 어떤 형태의 취업도 다 허용 ② 취업비자로 갱신 시 대학전공학위에 적합한 일자리에 한해 work permit으로 허용)	N (가족이 필요에 의해 파로 신청)	N (개별적 취업 허가가 요구됨)
프랑스	322	Y	Y	Y (연간 964시간만 허용)	Y (임시 체류 증 APS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최소 석사학위의 졸업 후 직업경력, 구직활동을 위해 갱신이 불가능한 6개월부터	Y/N APS의 경우,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직장에서 인턴 등의 직업훈련 또는 법적 근로시간의 60% 범위 이내에선 어떤 종류의 직업에도 종사 가능.	N (학생이 프랑스에 18개월 이상 계속해서)	N

					12개월까지의 임시체류 증 신청가능. 또는 법적 근로시간의 60% 범위 이내에선 어떤 종류의 직업에도 종사 가능. 노동허가증 Autorisation de Travail: 비EU회원국에게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나 회사가 구직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청해서 받는 work permit)이 있음	체류하지 않는 경우)	
미국	350	Y	Y	Y (주당 20시간까지/ 방학, 휴가 때는 40시간까지. 처음 1년은 교내 취업만 가능)	Y (F-1 선택적 실무수습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 졸업 후 최대 12개월 간 미국에 남아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비자)	Y (①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비자의 경우 취업 시 전공 연계는 매우 중요함. 취업하는 분야가 전공과 상관없는 분야라면 비자를 아예 신청할 수 없음. ② H-1B 비이민비자 -특정직업군,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 최소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함)	Y (파로 개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N
캐나다	271	Y	Y	Y (주당 최대 20시간. 학교 밖에서 취업할 경우 파로 개별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	Y (졸업 후 취업허가증 프로그램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최대 3년간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N (① 졸업 후 취업 허가증 프로그램 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최대 3년간 캐나다에서 일을	Y N (개별적으로 취업 허가가 필요함) *open work permit

					<p>할 수 있게 허용하는 프로그램. 취업 시 전공연계여부는 중요치 않음</p> <p>② 캐나다경험그룹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 최소 1년간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정규직 취업을 했을 경우 영주권 부여. 취업 시 전공연계여부는 중요치 않음</p> <p>③ 박사학위수여예정자 -연방숙련노동자 (PhD) Eligibility Stream -Federal Skilled Workers : 박사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에게 연방숙련노동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부여함. 취업 시 전공연계는 중요하지 않음)</p>	
호주	546	Y	Y	Y (2주에 최대 40시간)	<p>Y (졸업 후 취업비자 Post-Study Work Stream: 2011년 11월 5일전 처음 유학 사증을 신청한 자들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사, 석사 수여자들은 최대 2년, 박사 수여자들은 최대 4년짜리</p>	<p>Y/N 비자 종류 마다 달리 적용 (① 졸업 후 취업비자 Post-Study Work Stream: 2011년 11월 5일전 처음 유학 사증을 신청한 자들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사, 석사 수여자들은 최대</p> <p>Y (주당 최대 20시간)</p>

					<p style="text-align: center;">취업비자를 받음)</p>	<p>2년, 박사 수여자들은 최대 4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음. 취업 시 전공 연계여부는 중요하지 않음</p> <p>②졸업생취업비자 Graduate Work Stream : 취업을 할 때 맡는 직위나 직업이 호주숙련기술자 목록에서 명시한 학위조건과 능력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 연계가 필수적임)</p>	
뉴질랜드	352	Y (최대 4년까지)	Y	Y (정규학생의 경우 주당 20시간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Y</p> <p>(졸업 후 취업비자 Post-Study Work Visa (open):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유예기간)</p>	<p>N</p> <p>(① 졸업 후 취업비자 Post-Study Work Visa (open):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유예기간.</p> <p>② 취직이 되면 고용주 후원을 받아하는 2년 또는 3년 기간의 Post-Study Work Visa로 변경 신청 필요)</p>	<p>Y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의 가족의 경우.</p> <p>Y (학생과 같이 체류하기 위해서 가족비자 를 신청 필요) 가능하지만, 방문 비자로 있는 학생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음)</p>

일본	210	Y (국가 간 맺은 협약에 따라 30여개의 종류)	Y (비자 종료 전, 1년 이내 제입국)	Y (취업허가-자격 외 활동 허가-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하며, 주당 28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 방학 중에는 하루 최대 8시간까지)	N	Y (27개 종류의 다양한 체류 비자가 있는데 신청 시 각 비자에서 허용된 활동, 허용된 분야의 취업만 가능하다. 대학 졸업 후 Specialist in Humanities/International Services 비자나 Engineer 비자로 변경 신청해서 취업)	Y (자격외활동허가 자격外活動許可 를 따로 받아 주당 28시간 미만의 비정규직 가능)
		Y (3개월 이상 지속되는 €330 학업 (300, 온 라인 2014년 학기) residenc e permit f o r study)	Y (교육과정의 일부이거나, 학위취득에 필요한 취업,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일일 경우 현 재 거주 허가가 필요. 이 permit은 일년 마다 심사하여 연장됨)	Y (교育과정의 일부이거나, 학위취득에 필요한 취업,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일일 경우 현 재 거주 허가가 필요. 이 permit은 일년 마다 심사하여 연장됨)	N	(학생거주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6개월 유효기간의 구직자용 거주비자를 신청해야 함. 전공 연계 여부는 필요 없음)	N (개별적 판단으로 의료보험 구입. 비 EU회원국 출신의 경우는 반드시 의료보험 구입. 학생 거주 (개별적 취업허가 요구됨) 비자 발급의 필수조건. 폴리텍학교나 응용과학 대학의 학생일 경우는 대부분 학교 보건소의 보건 서비스 제공)

4.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비자제도 개편 중심)

가. 한국 유학시장의 현황

-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대안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다 있음(민귀식 외 2014, 서영인 외 2013, 오정은 2013).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학기간 및 학위취득 이후의 정주 및 취업기회 제공과 관련된 제도적 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장기 체류 및 취업, 그리고 한국 내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탐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한편,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명확한 상황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①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목적의 우선순위 제시 및 통합적 정책수단의 확대가 필요함
 - ② 유학생 유치정책의 경우, 산업적, 학문적, 정치적, 문화 등 정책추진의 목적과 근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간 조화와 기술적 조정이 필수적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 목적들 간의 조화 수준이 현저히 낮으며, 정책은 추진 주체에 따라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함
 - ③ 국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유학 대상국으로서의 경쟁력은 그리 높은 수준

이라고 볼 수 없음. 유학생의 유치는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한편, 2014년 현재 중국유학생이 전체의 59.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유학생의 출신은 아시아지역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음

④ 전반적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준은 유학 강국들과 비교하여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교육 현장에서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평가도 그리 높지 않음

⑤ 2014년 현재 196개 4년제 대학에 총 84,891명의 유학생 중 79,693명 (전체의 93.88%)이 등록 중이며, 4년제 대학의 유학생 중 43,186명의 학생이 22개 대학(경북, 부산, 전남, 건국, 경희, 계명, 고려, 국민, 동국, 상명, 서강, 선문, 성균관, 연세, 영남, 우송, 이화, 인하, 중앙, 한국외국어, 한양, 서울)에 소속되어 있어(50.87%의 학생이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6.17%에 해당하는 대학에 소속),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임

<표 VI-6> 2014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고등교육기관 전체)

학생 수	대학 수	학생 수 (구간 전체)	학생 수 (누적)	학생 수 (평균)
1000-4609	22개 대학	43,186 (50.87%)	43,186 (50.78%)	1963
500-999	25개 대학	17,123 (20.17%)	60,309 (71.04%)	685
300-499	20개 대학	7,708 (9.08%)	68,017 (80.12%)	385
299 이하	289개 대학	16,874 (19.88%)	84,891 (100%)	58
전체	356개 대학	84,891 (100%)	84,891 (100%)	238

자료: 교육부 내부 자료(2014)

- 대규모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효과적인 유학생 학사관리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이는 또다시 이민 및 출입국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표 VI-7> 2014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4년제 대학)

학생 수	대학 수 (구간전체)	대학 수 (누적)	학생 수 (구간 전체)	학생 수 (누적)	평균 학생 수	수도권	지방
2,000 이상	9개 대학 (4.6%)	9 (4.6%)	26,457 (33.2%)	26,457 (33.2%)	2,940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 교, 건국대학교, 동국대 학교, 중앙대학교 (9)	
1,000-1,999	13개 대학 (6.6%)	22 (11.2%)	16,729 (21.0%)	43,186 (54.2%)	1,287	국민대학교, 한국외국어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상명대학교, 인하대학교 (6)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우송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선문대학교(7)
500-999	25개 대학 (12.8%)	47 (24.0%)	17,305 (21.7%)	60,491 (75.9%)	692	충실대학교, 경기대학교, 홍익대학교, 가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아 주대학교, 세종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시립대 학교, 숙명여자대학교 (10)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부경대학교, 강원대학교, 배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청주대 학교, 제주대학교, 호남 대학교, 영산대학교, 동 서대학교, 신라대학교, 공주대학교, 우석대학교 (15)
300-499	19개 대학 (9.7%)	66 (33.7%)	7,405 (9.3%)	67,896 (85.2%)	390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 교, 대진대학교(4)	한서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부산외국어

						대학교, 경성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림대학교, 목포대학교, 호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15)
100-299	50개 대학 (25.5%)	116 (59.2%)	9,249 (11.6%)	77,145 (96.8%)	185	한밭대학교, 창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남부대학교, 동의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동명대학교, 세명대학교, 세한대학교, 건양대학교, 동신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중부대학교, 대전대학교, 인제대학교, 안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초당대학교, 청운대학교, 목원대학교, 군산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서경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관동대학교, 가야대학교, 백석대학교, 위덕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37)

50-99	20개 대학 (10.2%)	136 (69.4%)	1,572 (2.0%)	78,717 (98.8%)	79	안양대학교, 삼육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덕성 여자대학교, 용인대학교, 한신대학교,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9)	동양대학교, 고신대학교, 경남대학교, 극동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남과 학기술대학교, 한국교통 대학교, 광신대학교, 한 국국제대학교, 영동대학 교, 호원대학교 (11)
20-49	21개 대학 (10.7%)	157 (80.1%)	742 (0.9%)	79,459 (99.7%)	35	동덕여자대학교, 그리스 도대학교, 서울기독대학 교, 한국항공대학교, 한 국성서대학교, 한영신학 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서울교 육대학교(9)	제주국제대학교, 경동대 학교, 경일대학교, 대구 한의대학교, 상지대학교,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 학교, 창신대학교, 중원 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경주대학교,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12)
1-19	38개 대학 (19.4%)	195 (99.5%)	234 (0.3%)	79,693 (100.0%)	6	감리교신학대학교, 한국 체육대학교, 신한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인천가 톨릭대학교, 서울장신대 학교, 칼빈대학교, 루터 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북대 학교(11)	침례신학대학교, 송원대 학교, 탐라대학교, 대구 교육대학교, 영남신학대 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 원, 서원대학교, 부산교 육대학교, 호남신학대학 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신 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 학교, 대구예술대학교, 학교, 꽃동네대학교, 한 라대학교, 대전신학대학

							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일장 신대학교, 진주교육대학 교, 예수대학교, 춘천교 육대학교, 목포가톨릭대 학교, 서남대학교, 영산 선학대학교, 한중대학교 (27)
0	1개 대학 (0.5%)	196 (100.0%)	0 (0.0%)	79,693 (100.0%)	0		공주교육대학교 (1)
전체	196개 대학 (100.0%)	196 (100.0%)	79,693 (100.0%)	79,693 (100.0%)	407	71개 대학	125개 대학

⑥ 한편, 외국인학생의 취업률을 매우 낮은 상태임. 2013년 중앙일보 보도 (2013. 6. 5)에 의하면 매년 1만 명의 졸업 유학생 중 취업자는 100여명에 불과함

나.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

1) 유학생 유치의 명확한 목표 제시

- 앞에서 제시한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무엇을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확보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산업의 경쟁력,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 대학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대응, 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 등 유학생 유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분야는 많으나, 현재 정책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책추진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유학생 정책은 다문화 통합 및 이민정책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한국사회에 질 높은 노동력 및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2) 유학생에 대한 제도적 규제 완화

- 2011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유학생 유치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함

① 학위 중, 학위 이후 취업 기회 확대

- 현재 한국 내 유학생은 졸업 후 D-10 비자로 간접을 통해 최대 2년간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최대 1년, 석, 박사 학위자는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할 의무가 있음)
- 취업 시 전공연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전공-직업의 연계 완화를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보충성’의 시각보다는 분야에 따라 ‘효율성’ 및 ‘경쟁력’의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D-2(유학), 및 D-10(구직)비자에서 취업비자(E-1~E7)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 구직자격 또는 유학 자격을 소지(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한편, 이 중 특정 활동(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득해야 함

<표 VI-8> 특정 활동 체류자격 변경허가관련 심사기준

분야	심사기준	비고
취업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과목과 취업직종의 관련성 심사 - 전문학사는 전공과목과 <u>직접 관련이 있고</u>, 학사이상은 전공과목과 <u>관련이 있는</u>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허용 	
국민고용 침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대체성 및 국민고용과 연계하여 적정 허용인원 산정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제한(단, 첨단산업분야 등은 주무부처 추천이 있는 경우 20%를 초과하여도 고용 허용)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 요건 적용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심사(근로계약금액이 고용업체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60% 미만이거나 월 평균 150만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별 고용 허용인원 등 의 기준이 별도를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 사증발급인정 서 심사 시에 도 동일 적용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4),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최근 들어 일부 영세업체들과 저임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 등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심사기준을 보완

- 이러한 구직비자제도는 비교대상 8개 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중 영국(2012년 폐지)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시행중임
- 하지만, 한국의 경우, 6개월 주기의 갱신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D-10비

자의 도입 자체 역시 소수의 고급 외국 인력의 체류를 위해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유학생들의 접근성 및 취득가능성은 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구직비자로 체류하는 기간 중의 취업 허가(전공연계성 상관없음)와는 달리, D-10 비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을 불허하고 있으며, 기업 등의 인턴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기간 내 유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임
- 따라서, 현재 학위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자 및 취업제도 관련 규제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구직비자(D-10)의 갱신기간 확대(6개월→1년, 혹은 삭제)
 - ▶ 구직비자의 허가제에서 신청제로의 전환(신청 시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 발급)
 - ▶ 구직비자 체류 시 전공과 상관없는 취업활동 허가
 - ▶ D-10 비자로 구직활동 시 E-7 비자 발급 일정 퀼터 제공
 - ▶ D-4(유학)와 D-10, E-9(비전문취업)와의 학문-취업 연계성 마련
(고용노동제 내 유학생 퀼터 확보)
 - ▶ E비자(취업) 발급 시 전공연계성 여부 완화 및 폐지 고려
 - ▶ 외국인 고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여
 - ▶ 결론적으로, 현행 한국의 제도 하의 학위과정 중 근로기준, 호주의 졸업 후 구직비자(Post-Study Work, 졸업 후 학위별 2~4년), 취업 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은 전공-직업 무연계 제도를 조합한 ‘유학-취업 연계제도’의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음

② 유학생 가족 관련 제도 및 가족의 활동 활용방안

- 유학생 가족들은 제도적으로 한국에의 장기 거주를 제도적으로 허가받은 외국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유학생들과 더불어 한국과 유학생 가족 모국간의 문화적, 정치적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집단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주요 국가들의 유학생 가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VI-9> 유학생 가족의 정의

국가	유학생 가족(Dependent)의 정의
영국	(1) 남편 또는 부인 (2)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공식적 법적으로 등록된 관계에 있는 동성배우자 (3) 최소 2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미혼의 배우자 또는 동성배우자 (4) Tier 4 비자보유자가 영국에 도착할 시점에 18세 미만의 자녀
독일	배우자 또는 자녀(배우자란 남편 또는 부인, 합법적 동성결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동성배우자를 뜻함)
프랑스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spouse or dependent children)
미국	F-1 비자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이하의 미혼자녀
캐나다	(1) 배우자 또는 법적 동반자 (2) 미성년 자녀 (주에 따라 다르나 18세 또는 19세 미만 자녀)
호주	반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의 미성년 자녀 (your partner and you and your partner's dependent children)
뉴질랜드	동반자 또는 미성년 자녀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일본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spouse and unmarried child supported by their family living in Japan)

- 연구 대상 8개국 대부분의 경우 유학생의 가족은 따로 비자를 신청하며,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얻음
-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영어권 국가와 일본의 경우는 가족의 노동을 폭넓게 허가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미국은 유학생 가족의 노동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음
- 영국과 호주의 경우 배우자의 단기 취업에 대해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음. 이에 비해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경우 배우자들의 취업이 노동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은 우려, 노동 및 취업을 불허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들의 취업을 “방송, 영화, 모델 활동에 일희성 또는 일시 단역 출연, 학원 등에서 회화강사(E-2) 또는 외국어학교 교사,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외국어 교열원(E-7)” 분야에 한해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영국과 같이 유학생의 유학 기간 내 배우자들의 노동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편, 일반 방문취업(H-1)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 대한 방문취업을 연계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사항임. 하지만, 이 경우 고용허가제를 조건으로 한 비전문취업비자(E-9)와의 제도적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유학생 가족에게 고용허가제에서의 쿼터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 등)
- 유학생 가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 현재 허용하고 있는 취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거주기간 동안에는 E1~E9 비자와 관련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자격증과 관련된 조건은 완화) 면제
- ▶ 국내 유학생 및 유학생 배우자 등 가족에게는 관광취업(H-1)의 기간을 유학생 학위기간 및 구직기간 등 유학생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여 유학생 가족의 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 또한, 유학생 배우자의 경우 E-9 또는 H-1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

3)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강화와 일자리 연계 추진

- 외국인 유학생의 낮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민귀식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 모국이나 관련국들에 진출한 기업들의 유학생 채용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또한, 소수의 전문대가 ‘채용형 계약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국인 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고 있음
- 정확한 시장과 산업에 대한 판단과, 기업의 수요, 학생의 배경,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의 유치와 성공적인 취업 및 정주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를 전제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 특정 활동(E-7) 비자의 82개 해당직종과 관련된 외국인 교육프로그램 개설(전문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취업을 매개로 한 연계성 강화

- ▶ ODA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업교육 과정 제공 및 우수 이수자들의 한국 내 유학 및 취업기회 제공
- ▶ 한국 내 직업교육 이수자들의 기술창업(D-8-4) 규제 완화(현재 ‘지식재산권 보유 및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법인 창업자’로 지원 자격 한정)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유로운 소규모 기업 창업 지원(영국의 Graduate Entrepreneur Tier 1 visa 응용)

VII. 정책 제언

1.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

가. 외국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및 유학 정보 센터 강화

- 일부 대학이 외국 현지대학과 소규모 한국어 교육, 현지 자매결연 대학 또는 정부의 유학박람회 참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소규모·단발성 유학 정보제공으로는 체계적 모집에 한계
-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작하여 재외동포 및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유학 정보 제공을 위한 센터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중국 내에서도 한국 유학수요가 북경, 상해 등 중국의 대도시에서 내륙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한류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아세안 및 아프리카지역,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CIS지역 등으로 유학생 모집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요 흡수

- 국내 대학의 한국어과정 연수생은 꾸준히 증가하나 이들이 정규과정 학생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연수단계에서 종료되는 상황
 - 국내 한국어과정 연수생은 '09년 대비 '13년에 193% 증가하였으나, 학사과정은 46% 감소

<표 VII-1> 과정별 신입생 수

('14.12월 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어학연수(명)	5,312	5,967	8,246	12,659	15,538
학사(명)	11,697	11,547	8,279	8,216	8,014

출처: 법무부

-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숙련 노동자의 계속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 국내 외국인 취업자 전체 85만 명 ('14.10월 기준)
 - 저숙련 노동자(비전문취업자 25만+방문취업자 21만)가 전체 취업자의 54%
 - 연령별로는 20대(29%), 30대(30%), 40대(20%), 50대(16%)
 -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45%), 베트남(8%), 중국(6%) 등
- 대학 내 유학생담당부서(국제교류처)와 한국어학당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어학연수생을 동일 대학 또는 인근 대학의 정규과정 학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어학연수생에 대하여 한국유학홍보 강화 및 우수 연수생이 정규과정으로 입학 시 장학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국내체류 우수 외국인근로자(20·30대, 고졸이상)가 유학생으로 유입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첨단산업, 한국발전경험, 전문기술 등 유학생 맞춤형 특화교육 과정 개편·개설

- 유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유학 목적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유학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
- IT, 자동차, 조선, 원자력, 국제마케팅 등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및 본국 귀국 후 취업에 유리한 유학생 특화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학사 또는 석사)
 -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경제발전, 산업화, 인력양성 등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체계화한 학과를 개설하여 개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사 또는 석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KOICA 지원 정부초청연수('14년 19개 과정 362명 석사학위 지원)와 차별화하여 개도국 정부파견 공무원, 국비유학생 등 유치
- 보건, 의료, 미용, 자동차정비 등 전문기술 과정을 정규 또는 야간 과정의 형태로 개편·개설하여 인근의 외국인근로자, 개도국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학사 또는 비학위 자격증)
 - ※ 전문대에 중국 및 개도국에서 부족한 인력이나 향후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개설

라. 유학생 취업 및 동문회 운영 지원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동문회조직 지원을 통한 지한·친한 인사 양성을 통해 향후 지속적 유학생 유치기반을 마련할 필요
- 국내기업에 취직을 원하는 유학생과 유학생 채용을 원하는 국내기업의 취업 연계, 산-관-학 유학생 인턴십 제공을 확대할 필요
- 유학생이 본국에 귀국한 후 한국을 소개하는 지한·친한 인사가 되도록 독일, 일본 등 다양한 동문조직 활동 지원 사례 벤치마킹 필요
 - 개별 대학 차원을 넘어서 중앙 차원(사업위탁기관)에서 관리·지원
 - 정부초청장학생(GKS) 동문회(아래 표)와 연계하여 활용

<표 VII-2> 정부초청장학생 (GKS) 동문회

구분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국가	중국 등 19개국	러시아 등 8개국	칠레 등 3개국	케냐 등 2개국
지부	24개	9개	3개	2개

- 통합 동문회 운영, 국가별 동문회 활동 지원, 체류 및 귀국 외국인 유학생 등의 네트워크化, 통계관리 등 통합 DB 구축, 사후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2.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가.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중 국제화 기반을 갖춘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집중 지원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중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10개), 특성화 우수학과(34개) 및 지역선도대학(6개 컨소시엄)을 통해 약 3만 명 확대
 - ※ '14년 지원액 -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 약 95억 원, 특성화 우수대학 : 약 12억 원, 지역선도대학 : 60억 원 등 총 167억 원
 - ※ 더불어, 수도권 대학의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4개)을 통해 국내 대학의 강점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 확대 추진

<표 VII-3> 대학 특성화 사업 유학생 유치 확대 계획(안)

(단위 : 명)

구 분	'15	'16	'17	'18	'19	계
국제화 특성화 사업단	1,101	1,261	1,322	1,387	1,455	7,675
특성화 우수학과	1,507	1,582	1,713	1,767	1,784	9,768
지역선도대학	2,072	2,267	2,357	2,391	2,528	13,559
계	4,680	5,110	5,392	5,545	5,767	31,002

- ※ 특성화 국제화사업단 '17~'19 및 지역선도대학 '19년은 과거 증가 추세에 따른 추정치이며, '14년 4,508명 포함

- '16년 예정되어 있는 지방대 및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중간평가 지표에 유학생 유치 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모

두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특성화사업 참여를 위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나. 정부초청장학생(GKS) 지방대학 트랙 운영

○ 정부초청장학생은 대체로 자비유학에 비해 학업능력이 월등히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여 선발(매년 70여개 대학에 재학 중)되나,

- 대부분 학생들(2/3 이상)이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여 지방대의 우수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

<표 VII-4> 정부초청 장학생의 수도권·지방대학 수학 규모 (비율)

구분	2012			2013			2014		
	대학수	학생수	비율	대학수	학생수	비율	대학수	학생수	비율
수도권	28	1,005	67.54	27	948	69.30	26	1,095	69.18
지방	45	483	32.46	43	420	30.70	42	488	30.82
합계	73	1,488	100	70	1,368	100	68	1,583	100

자료 : 매년 9. 1자, 정규 학위과정생(어학연수생 제외), 관리인원 기준

○ 매년 신규 선발 인원 중 지방대학으로 진학시키기 위한 지방대학 트랙을 ’15년부터 실시·운영

- ’15년에는 대학원생 50명을 지방대학 트랙으로 배정, ’16년 이후 학부 과정 지방대학 트랙을 운영 및 배정인원 확대

3. 유학생 유치 지원 및 기반구축

가. 권역별 유학생 서비스 센터 및 통합 기숙사 건립

- 지역의 유학생 유치·관리 기반 미흡으로 외국인 유학생 초기 적응 미흡에 따른 한국유학 만족도 저하
 - '14년 11월과 12월에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학 생활의 어려움으로 재정 > 학업 > 생활 순으로 응답
 - 생활의 어려움은 정부-지자체-학교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임
- 학업·생활·취업 지원을 위한 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센터 운영 및 글로벌 교류센터(통합 기숙사) 건립 추진
 - 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유학생의 접근성 및 교통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개인 맞춤형 원스톱 체제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표 VII-5> 글로벌 교류센터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내용
취업 지원	취업·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외국인 취업 관련 기관 연계 등
생활지원	출입국·의료보험 등 각종 생활·법률 정보,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 등
학업지원	한국어 회화, TOPIK 특강 등

- 교류센터는 지자체·대학 연합 컨소시엄 형태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써 편의·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나. 유학생 취업 및 가족동반 지원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우수 외국인의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업·구직 비자 체류 요건 완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표 VII-6> 취업·구직 비자 체류 요건

구 분	현 행	개 정 ('15.2.10 시행)
구직비자 체류기간 확대 (D-10)	석사, 박사 : 2년	
	학사 : 1년	학사 : 2년
	전문학사 : 1년	전문학사 : 2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2.5 이상)
구직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D-2→D-10)	학사 (평균학점 3.0 미만 시 지도교수 추천서)	
	전문학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평균학점 3.0 이상)	학점, 국가기술자격증, 지도교수 추천서 폐지
취업비자 자격변경 요건 완화 (D-2→E-7)	학사, 석사, 박사 (취업직종 전공과목 관련성)	취업직종 전공과목 관련성 폐지
	전문학사 (평균학점 3.0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밀접한 관련성)	학점 및 국가기술자격증 요건 폐지, 취업직종 전공 관련성 폭넓게 인정

- 중장기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일정기간 유학·체류할 경우, 가족 동반 허용 및 구직비자 제공 검토
 - ※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할 경우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2명까지 초청 가능 ('15.2.10 시행)

< 참고 > 외국 사례

-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 배우자 등 가족의 노동이 허가되며, 특히 단기 취업에 대해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
-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노동시장의 왜곡 가능성은 고려하여 유학생 가족의 노동을 허가하지 않음

다. 재외 한국학교를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 재외 한국학교는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되는 학교로서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자녀에게만 원칙적으로 입학 허용
 - 다만, 일본, 남미, 대만 지역 등은 현지 대학 및 사회진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외국인 학생 자녀들도 일부 재학* 중
- ※ 재학생수('14년, 명) : 12,322명(외국인학생 313명, 2.5% / 재외국민·동포 12,009명, 97.5%)
- 재외 한국학교에 외국인 입학을 허용(정원 30% 이내)하여 국내대학 진학을 유도, 미래의 지한파 육성에 기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개선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대학에게 충분한 제도적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
 - 인증제 지표와 관련, 지방 사립대의 경우 중도탈락률, 재정건전성 등의 지표에 대해 대학 특성을 고려한 상이한 기준치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

<표 VII-7>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11 ~ '14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증대학	10개교	30개교	49개교	83개교
비자제한 대학	17개교	13개교	10개교	4개교

- 인증대학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15~) 및 시간제 취업 허가 시간 연장 (주중 20시간 → 25시간)
 - * 인증 평가 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의 각종 박람회(유학박람회 및 글로벌 채용박람회 등), GKS 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고, 국제협력·유학생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설정할 필요
 - * '(가칭)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도대학 사업' ,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등
- 2주기 인증제('15년 ~ '17년) 평가 매뉴얼 제작 시 지표 개선 및 보완

- '15년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확대·개편하여 유학생이 원하는 우수 교육여건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재정비 계획

※ '중도 탈락률' 지표를 삭제할 예정

마. 해외 유학홍보 강화

- 세종학당이 한국어 보급뿐만 아니라 유학 정보제공 등 기능을 수행하는 유학생 유치·홍보 거점기지가 되도록 문화원과 협력(세종학당 웹사이트에 유학정보 제공 등) 관계 구축 필요

※ 세종학당 현황('15년) : 총 54개국 130개소 지정 및 운영 중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은 전 세계에 소재, 연 29만 명 영어교육 실시와 아울러 영국대학 유학정보를 제공(온라인 포함)

- 국제교류 관련 대학 협의체(KAFSA* 등)의 국제교류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 대학 공동부스, 리셉션, 세미나 등을 활용한 해외 유학홍보 확대 필요

*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

참 고 문 헌

- 김경미. (2012).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독일의 정책과 비자제도.”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시리즈 No. 2012-02.
- 민귀식 외. (2014).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교육부.
- 법무부. (2014).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서영인 외. (2012).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정은. (2013). “우수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 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 정기선 · 최서리. (2014). “해외 외국인력 도입정책과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116: 32-47.
- 조재은. (2010). “차세대 효자 수출상품으로 주목받는 핀란드식 교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동향/연구보고서.
- 하연섭 · 문우식. (2012). “2단계 Study in Korea 추진 방안 설계.” 한국연구재단.
- 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2013). “Review of Student Visa Assessment Level Framework 2013.”
- Australian Government. (2011). *Strategic Review of the Student Visa Program 2011*.
- British Council. (2012). *The Shape of Things to Come: Higher Education Global Trends and Emerging Opportunities to 2020*. www.britishcouncil.org/higher-education.
- DAAD. (2013). *Executive Summary: The Financial Impact of Cross-border Student Mobility on the Economy of the Host Country*. Berlin: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HM Government. (2013). *International Education - Global Growth and Prosperity: An Accompanying Analytical Narrative*. www.gov.uk/bis.

Informetrics. (2013). *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Education 2012/13 for Education New Zealand*.

Juntunen, Timo. (2014). "Education Export - What Does It Mean?" *Journal of Finnish 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No. 3.

International Education Advisory Council. (2013). *Australia - Educating Globally: Advice from the International Education Advisory Council*.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0). *Finnish Education Export Strategy: Summary of the Strategic Lines and Measures*.

NAFSA. (2014). "The Economic Benefits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the U.S. Economy." www.nafsa.org/policy.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Roslyn Kunin & Associates, Inc. (2012).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Education in Canada - An Update: Fincal Report."

부록 :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조사를 위한 설문지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 연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정책연구진에서는 각 대학의 협조를 바탕으로 고등 교육 국제화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아래의 설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 I은 대학 관계자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부분이고, 설문 II는 유학생들이 직접 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대학별로 20명 이상의 유학생이 설문 II에 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학생이 2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전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연구책임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이주현

공동연구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연섭

연구협력관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사무관 남궁현

전화번호 : 044-203-6766

e-mail : hyoun@moe.go.kr

I. 대학 작성 부분

1. 등록금 및 장학금 총액

<'14. 4. 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대학원생	학부생	어학연수생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총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총액			

- 1)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 및 장학금 총액 기재
- 2) 어학연수생의 경우 1분기 등록금 및 장학금 총액 기재

2. 주거비

1) 주거 형태

<'14. 4.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대학원생	학부생	어학연수생
총 원			
기숙사 거주			
기숙사 외 거주			

2) 외국인 유학생 1인당 한 학기 평균 기숙사비 : _____ 천원

※ 평균 기숙사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표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주거하는 기숙사별 기숙사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기숙사명)	거주 유학생 수	기숙사비 (한 학기)
1.		
2.		
3.		
4.		
5.		

II. 주거비와 생활비에 관한 설문조사

[학생 작성 부분]

본 설문조사는 교육부의 의뢰로 유학생들의 지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설문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모든 사항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조사결과는 통계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유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연구책임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이주현

공동연구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연섭

연구협력관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사무관 남궁현

전화번호 : 044-203-6766

e-mail : hyoun@moe.go.kr

1. 다음은 주거 형태와 주거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까? ()

- ① 예 (☞ 2번으로 가주세요)
- ② 아니오 (☞ 3번으로 가주세요)

2) 현재 살고 있는 기숙사의 한 학기 기숙사비는 얼마입니까?

() 원

3)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는 얼마입니까? (공동으로 빌려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내는 비용만 적어 주세요)
() 원

2. 다음은 월 평균 생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한 달 동안 식비로 얼마를 지출합니까?
() 원

5) 한 달 동안 교통비로 얼마를 지출합니까?
() 원

6) 한 달 동안 통신비로 얼마를 지출합니까?
() 원

7) 한 달 동안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잡비로 얼마를 지출합니까?
(의료보험료, 술·담배, 여행, 영화관람 등 취미생활, 의복 구입 등)
() 원

3. 다음은 한국 유학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8) 한국으로 유학을 온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귀국에 방문한 한국 측 유학 박람회 · 설명회
- ②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선배 · 친척 · 지인
- ③ 귀국의 교육 관련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 ④ 한국의 유학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
- ⑤ 인터넷, 브로슈어, 각종 광고
- ⑥ 기타()

9) 한국으로 유학을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더 좋은 취업기회 획득
- ② 더 좋은 진학기회 획득
- ③ 다양한 학문적 경험
- ④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교류
- ⑤ 한국어 등 외국어 역량 강화
- ⑥ 기타()

10) 한국에서의 유학생 활동 중 가장 어려움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생활
- ② 학업
- ③ 재정(비용)
- ④ 법률
- ⑤ 의료
- ⑥ 기타()

11) 만약 한국에 온 유학생의 가족에게 취업비자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유학생이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 다음은 학생의 개인 신상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12)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 ② 여

13)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요?

()

14) 지금 다니고 있는 과정은?

- ① 어학연수
- ② 전문대
- ③ 4년제 대학 학부
- ④ 석사 과정
- ⑤ 박사 과정
- ⑥ 기타

15) 한국에 오신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2년
- ③ 2년~3년
- ④ 3년~4년
- ⑤ 4년 이상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